

당신의 페미니스트 포럼트

광주,
여성 10인의 삶을 글로 엮다

“만약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
-뫼리엘 루카이저-

민우회 사무실 귀퉁이에서, 때론 그 분들의 일터
한 구석에서 몇 개월에 걸쳐 10명의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삶을 통과하는 10명의 이야기 하나 하나.

소중한 ‘히스토리’이자 이 시대의 기록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인터뷰를 할수록 더 확신을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삶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필자이자 자기 인생의
전문가였던,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10명의 인터뷰이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목차

-
- 1 “덩 덕 덕 쿵 덕 쿵” 다드래기 장단 가락처럼 삶을 사는 다드래기. p. 4
- 다드래기(웹툰작가)
-
- 2 우리 모두 “후회없이 날아 올라!!” p. 16
- 소영(싱어송라이터)
-
- 3 미와 지성을 겸비하고 싶었던 미지에서 소현으로!! p. 27
-한소현(광주여성민우회 전 활동가)
-
- 4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 무도! p. 40
-김진희(무도/광주여성민우회 회원)
-
- 5 열등감과 분노를 해방감으로 연결하기 p. 56
-이희영(아시아여성네트워크 활동가)
-
- 6 배우고 깨지고, 다시 회복되는 지금이 나의 ‘페미니스트 모먼트’ p. 70
-말리(전남대 여성주의 동아리 팩트(F;ACT))
-
- 7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타인에게 묻는 사람! p. 82
-윤희경(‘하랑’ 활동가)
-
- 8 “바라보는 귀, 듣는 눈으로 들어” 듣는 사람, 이소아 p. 94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변호사)
-
- 9 총명아씨, 챔기름 언니, 장명아..경계에 서며 걷다 p.108
-장명아(찬찬히 방앗간)
-
- 10 엄마의 삶, 딸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 p. 125
-임민영(광주여성민우회 회원)
-

“덜 덜 덜 쿵 덜 쿵”

다드래기 장단 가락처럼

살을 사는 다드래기.

다드래기(웹툰 작가)

그 시작은 아주 우연한 만남이었다.

웹툰 ‘안녕, 커뮤니티’ ‘혼자 입원했습니다’ 등의 작품을 이미 읽어서 ‘다드래기’ 작가를 알고 있던 민우회 활동가가 광주여성영화제에 영화를 보러 간 그 날, 관객과의 대화 카톡방에 참여했다가 ‘다드래기’라는 이름을 발견한다. 그리고 조심스레 인사를 청했는데..꽤 오래 전, 함께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동료가 바로 그 웹툰 작가였던 것.

꽤 오랜 시간이 흘러 한 명은 여성단체 활동가로, 한 명은 웹툰 작가로. 그 우연한 만남을 듣고 3. 8 광주여성대회에 참여하고자 방문한 다드래기 작가에게 살짝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니 이 인터뷰는 우주의 기운이 모인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드래기 작가를 초대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작가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켈 먼저 궁금함이 들었던 게, ‘다드래기’라는 필명이었어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드래기: 전 혼자 일하는 편이라 노래를 자주 듣는 편이에요. 아마 다른 웹툰 작가님들도 그렇게 작업하실테구요. 저는 풍물. 이런 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풍물을 직접 제가 직접 치거나 하진 못하는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대학 때 우리 학교 풍물패가 너무 못하는거예요!! 아마 잘했으면 내가 들어가고 싶었을텐데. 좋은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주신 것 같았는데 실력이 안 늘더라구요. 필명 이야기하다 학교 풍물패 비난만..하하하. 다드래기 장단은 영남 농악에서 많이 쓰는 장단 이름이에요. 영남 농악에서 다드래기가 제일 빠른 장단이거든요. 그 빠름도 좋고 발음이랑 어감도 좋아서 쓰게 됐어요.

웹툰 작가들 그런 식으로 필명을 자주 지어요. 눈 앞에 치즈가 있다 그럼 치즈. 그런 식으로.

웹툰 작가님 중에 ‘재활용’ 작가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작가님이 필명 정할 때 눈 앞에 캔 음료가 있었대요. 거기에 재활용 마크를 보고 ‘재활용’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가님이 필명 때문에 후회할 때가 있다고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사람들이 똑바로 말하는 사람보다 재활용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정확히 생각이 안 나니깐 ‘쓰레기통’이라고 부른다고.. (모두 웃음)

Q. 아, 웹툰 작가들 필명만 모아서 봐도 재밌겠어요!!

저희 민우회가 회원 조직이다보니 여러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웹툰 작가라는 분야는 좀 낯선 거 같아요. 그래서 웹툰 작가의 일상은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다드래기: 웹툰 작가는 일에 성실하면 아예 밖에 나가질 못하는 거 같아요. 어딘가에서 계속 작업만 해야 하니깐요. 밖에 나가는 방법은 작업실을 따로 내는 건데 저는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원래 도서관을 자주 갔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도 이용했고, 오늘은 좀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작업하고 싶다고 하면 카페에 가서 작업하는 식이었어요.

Q. 그럼 시간은 정해놓는 편이세요?

작가들 보니깐 진짜 출, 퇴근 하듯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외부 작업실에 9시에 갔다가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다드래기: 저도 그나마 제 생각대로 시간을 정해서 하긴 하는데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해야 하는 사정의 작가들은 거의 그렇게 못하죠. 저도 작업 스케줄이 엉망이었던 적이 있는데 조카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언니가 그 때 난산을 해서 몸이 안 좋아서 조카를 저희 부모님 집에서 봤는데 부모님도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깐 잘 보는 게 어려웠죠. 그러다보니 조카가 제 자식이 되더라고요.

그 때 생각해보면 미쳤다고 싶은 게 아이들은 일찍 깨니깐 아침 6시부터 아이를 봐요. 6시부터 아이를 보고 9시쯤 아이가 자면 그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새벽 4시까지 일을 했었어요. 그 생활을 6개월 넘게 했는데 덩달아 우리 고양이도 아팠고. 그 때 거의 잤던 기억이 없고 이틀을 하루처럼 살았던 거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인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잠을 잘 못 자는 편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때의 세세한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면 기억을 삭제하는 건지. 참 신기하죠.

Q. 아이들 돌보고, 고양이도 아프고. 막막한 시간들이셨을 거 같은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다드래기: 그 때는 닥치고 했는데 돌아보면 진짜 어떻게 했나 싶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도 아프시고...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2019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도 제게 도움을 줄 게 없더라구요. 그리고 제 직업에 대한 이해도도 없다보니 무슨 일만 있으면 저를 부르셨어요.

‘나 안 놀고 있다. 나 이 그림 그려야 된다’ 그러는데도 막상 밤에 작업하고 있으면 너는 잠 안 자냐고 하는 식으로 제가 하는 일들을 진짜 일로 보는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각색 일이랑 독립출판 작품을 조금씩 하니가 계획성 있게 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쉬는 날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Q. 저도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언니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저는 비혼에 시민단체 활동가라 아주 높은 연봉을 받지는 못하니깐 부모님이 아프면 가장 1순위로 돌봄을 하게 될 사람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같아요.

뭐, 전문적 직군이라고 생각했던 웹툰 작가도 결국은 돌봄 영역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좀 서글픈 현실이네요. 작가님이 쓰신 웹툰 ‘혼자 입원했습니다’ 보면 주인공이 콜센터에서 노동자로 지내다가 발병해 입원을 하기도 하고, 작가님이 나온 팟캐스트에서도 콜센터 노동의 경험을 이야기하셨는데요. 혹시 그 때의 경험에 대해서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드래기: 그 때 생각하면 화장실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화장실을 못 가요. 해당 센터에서만 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본사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자리를 비우면 본사에서 센터 팀으로 연락을 해요. 이 사람 뉘데 지금까지 자리를 비우냐면서..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4분 이상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4분만 넘으면 빨간 불이 들어와요. 하루에 적어도 세자릿 수 이상, 100콜은 채워야 했어요. 저희 대한민국 서비스 수준의 기준이 되는 게 삼성인데 삼성에서 만든 게 24시간 서비스였어요. 고객이 왕이다. 그런데 그런 전략들은 자기들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에 너무 익숙해지고. 또 거기에 다른 곳들도 맞춰야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죠. 또 너무 무서운 게 블랙 컨슈머(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소비자)개념도 삼성이 먼저 퍼트리기 시작했어요. 그 때 생각하면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Q. 대부분의 콜센터 노동자들이 여성인데 노동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작가님의 웹툰 ‘혼자 입원했습니다’에서도 주인공이 입원할 때 친구 2명이 함께 돕는 내용이 나오고, ‘안녕, 커뮤니티’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공동체가 그려져 있는데요. 작가님이 꿈 꾸시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다드래기: 저는 사실 ‘공동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더 생각했던 거 같아요.

‘정’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보다는 약간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안녕, 커뮤니티’ 준비하며 정말 많은 자료들을 봤었는데 그 때 가장 많이 본 건 ‘노인 범죄’였어요. 노인 강력범죄.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뭔가 부딪침이 있을 때 보복을 강력하게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당연히 있고 그러니 말 그대로 ‘시스템적인 관계’가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저는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의존하는 그런 공동체가 생기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Q, 네 이해했어요. 뭔가 관계 지향적이고 관계 중심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 관계 안에 더 배제되는 사람도 있거나 혹은 관계맺기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참, 원래 ‘안녕, 커뮤니티’가 1, 2편 외에 3편까지 내용이 이어진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아직 출간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다드래기: 00 코믹스랑 계약 분쟁이 있었어요. 2017년 말 즈음에. 혹시 ‘지각비’라고 들어보셨어요? 건설사에서 공사기간 연장되면 내는 비용처럼 웹툰 시장에서도 작품이 지연됐을 때 연재비를 삭감해서 준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 간병을 할 때였는데 엄마가 투병 중인 상황에서도 지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증세가 심각해져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말을 했어요. 하루정도 늦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예를 들어 작품이 목요일에 업로드 되는 날이면 사람들이 생각에 목요일이 마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요일 오후 3시가 마감 시간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어서 미리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엄마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마 간병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바로 가자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실랑이만 하다가 못 가고 겨우 마감을 했어요. 업로드 자체를 늦게 한 게 아니라 수요일 오후 3시가 마감이라고 하면 그 날 6시에 마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엄마 간병 때문에 늦으셨으면 병원갔던 증명 서류 내줄 수 있냐고..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서 엄마를 병원을 못

데려갔다고 이야기했죠. 그 날 너무 화가 났어요. 고의적으로 늦은 것도 아니었고, 엄마가 아픈 것도 00코믹스 쪽에서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니. 그 날 엄마가 엄청 안 좋아지셨는데 또 병원 안 가시겠다고 해서 엄마랑 크게 싸웠어요. ”약 먹으면 낫는다. 그리고 봐라. 회사에서 지금 엄마 병원 간 증명서도 내라고 한다. 병원 가자“ 그런데 그 날 엄마가 돌아가신거예요. 엄마를 엄청 원망한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회사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길 바랐어요. 40일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태도가 변하지 않아서 친한 작가들끼리 모여 있던 페이스북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동안의 일들을 적어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지각비‘ 문제가 공론화 된거죠. 그 일 있고, ’어미 팔아가지고 돈 번다‘는 등 온갖 욕을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일이 촉매가 돼서 다른 작가들과 함께 6개월 가까이 싸웠던 거 같아요.

Q. ‘지각비’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웹툰 쪽 고용관계나 이런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서. 정말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겠어요. 그런데 웹툰이나 게임업계에 여성 혐오 문제나 여성 작가나 예술가들이 안전하지 않은 문제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웹툰 시장에서 ‘여성’ 작가로 겪으신 경험들이 있으셨을까요?

다드래기: 데뷔할 때 작품에 대해 재미없다로 시작하는 작품평부터 온갖 욕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여성 창작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젊은 20대 최소한 2, 30대 여성한테만 그래요. 왜냐. 쉽거든요.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나한테 잘해줄 것 같고 대하기 쉬운 것 같은 그 때.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어야지 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유명한 여성 웹툰 작가도 봐요. 그 사람은 원래 만화를 그렸지만 만화 데뷔하기 이 전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룬 다니며 돈 벌었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잖아요.

제가 작년에 [창작과 비평]이란 문학 계간지에 김현미 선생님의 <페미니스트 라이프 스타일> 이라는 책으로 평을 썼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구요. 페미니즘 이야기하지 말라고. 공격 받을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장담하는데 첫 째. 40살 먹은 만화가한테는 특히 여자 만화가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리고 둘째. 그런 생각하는 애들은 계간지를 사서 보지 않는다” (모두 웃음)

이번 인터뷰도 그래요. 내가 20대 여성 작가 같았으면 난리 났을걸요. 왜 그런 페미니즘 단체랑 인터뷰를 하냐고.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으면 판단을 못하더라구요.

저도 말로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나무위키에서 저를 검색하면 ‘여성인권에 관심을 높이려는’ 작가 라고 적고 옆에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말한 적 없음’ 이라고 설명되어있더라구요. (모두 웃음)

Q. 작가님 sns를 엿탐해보았는데요^^ 여성 이슈나 혹은 어떤 돌봄의 문제나 혹은 성소수자 문제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좀 관심 있는 혹시 이슈가 있으실지.

다드래기: 아무래도 “돌봄”이죠. 왜냐하면 해결할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장담 못하겠고. 제 웹툰 ‘혼자 입원했습니다’ 보면 주인공이 혼자 입원했습니다가 가능한 이유는 주인공과 친구들 셋 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 친구들이 결혼을 했다면 자기 가족들 돌보느라 입원한 친구에 대한 돌봄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저희 언니가 처음으로 부모님하고 이제 가까이 살게 된 거예요. 언니는 97년도 이후로 대학가면서 가까이 안 살았으니깐..저랑 부모님이 가까이 살 때는 저한테 탓하는 말도 자주 하고 했는데 언니가 아빠랑 살면서 언니가 말하더라구요. “너 어떻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냐”이제야 아는거죠. 돌보는 입장에 선 사람의 어려움을.

저 원래 ‘안녕 커뮤니티’ 작품 쓸 때 생각했던 그 시리즈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요양원 스릴러’라고. 그 때쯤 제가 신장 수치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급성으로. 막상 제가 투석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다보니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요양원’을 배경으로 나 같이 정기적으로 투석을 해야 해서 투석기 옆을 떠날 수 없는 사람. 심각하게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이 없어 못 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이 사람들을 향해 살해 위협을 하는 상황이 되거나, 재난 상황으로 그 곳을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도망은 어떻게, 투석은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일 때의 재난은 완벽히 스릴러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죠.

Q. 그럼 요즘은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다드래기: 제 작품 연재는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웹툰 시스템 자체가 장사하기 좋은 그런 위주로 가고 있어요. 웹소설, 웹툰 원작의 드라마들 많잖아요. 넷플릭스도 다 그런 드라마들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은 드라마화하기 위한 각색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음 아이টে็ม으로 저 로맨스 할 거예요.

Q. 다드래기의 로맨스는 뭔가...

다드래기: 매운 맛일까요. 좋아요. 젊은 남자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거 좋아요.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서 기분이 나쁜 게 결혼 안 하면 다 불륜인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런 방향으로만 그려지니깐 보고 있는 게 힘들어요. 저는 노희경작가 표 매운 맛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Q. 다드래기 작가표 매운맛 로맨스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막바지인데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실 분들께 하실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으실까요?

다드래기: 우선 공간이 너무 아늑하고 좋고요 이런 집을 갖고 싶네요. 우선 주거가 항상 불안정하니까요. 그리고 민우회 활동가들과 연결되서 너무 기쁩니다. 계속 지역 단체 활동가들, 단체들과 연결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후후어어 | 낫아- 우리!!”

소영(싱어송라이터)

민우회에는 여성주의연극모임 ‘시나페’라는 모임이 존재한다. 10년이 넘게 여성주의를 주제로 연극을 하는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모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처음 시나페의 연극을 봤을 때 극도 극이었지만 무대 한 칸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그 노래들이 그 극만을 위해 창작되었다는 것도.

나는 가수다, 히든 싱어..온갖 프로그램에 노래 잘하고 재능많은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인디밴드로,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광주라는 지역에서 음악하는 삶은 어떨까 궁금해졌다. 예술하면 가난하다는 게 정설인 것 같은 한국사회에서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또 어떨지. 늘 객원가수로, 음악으로 만나오다 음악가 소영, 여성 소영의 이야기를 듣고자 소영을 초대했다.

Q. 소영이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소영: 안 그래도 여기 오는 차에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하며 왔어요. 키워드라고 딱 하기는 어렵지만 관심 있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게요. 죽음과 상실이라는 단어가 제 음악 작업의 키워드 중 하나거든요. 관계에서 오는 죽음과 상실로 인한 감정들에 대한 관심이 크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불안감을 줘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제가 확대해서 생각하는 걸 보면서 제가 불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 노래 제목 중에 불안 씨앗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내가 나한테 불안 씨앗을 심어서 막 자라나는 건데 가사 마지막 부분에는 불안을 지워버려 날려버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죽음, 상실, 불안, 다 무거운 주제들이지만 우리가 직접 겪을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제 관심사입니다.

Q. 소영의 불안 씨앗이라는 그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럼 소영은 음악적 영감은 대부분 어디에서 얻으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소영: 음악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음악 감상 동아리를 먼저 하다가 직접 연주 해보고 싶어서 밴드를 결성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축제 때 공연도 하고 밴드구성원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20대 중반까지 함께 활동했어요.

마지막 밴드는 여성 5인조였는데 결정적으로는 베이스 치던 멤버가 나가고 베이스 쪽 멤버가 계속 바뀌면서 유지가 힘들어져 해체가 됐어요. 당시가 20대 중반이고 하니까 다들 불안하고 음악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음악으로 일자리가 없었고 다른 일을 병행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저도 자연스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친구들도 거의 그런 식으로 흩어지면서 한 8년 정도를 음악을 안 하고 살았어요. 서른이 넘고 다양한 일과 경험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왜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음악을 하면 되잖아 내가 왜 음악을 하고 싶는데 계속 핑계를 대면서 음악을 안 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음악을 해야지 결심을 하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 때가 음악을 진지하게 다시 시작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32살 때 활동하면서 앨범을 냈어요. 고등학교때는 밴드에서 일렉기타를 쳤는데 제가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서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음악을 하기로 결심하고 노래를 만들다 보니 노래하는 사람한테 가사의 감정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래도 직접 하게 됐어요.

음악을 만들 때는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미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날 수 있게 코드나 스타일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 음악적 영감보다는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네요.

(우리는 왕가위, 팀버튼에서 시작해서 넷플릭스 드라마까지 한참 좋아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이야기하였다)

Q. 많은 젊은 예술가들은 거의 서울이나 대도시로 떠나는 걸로 아는데 소영은 광주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남아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셨을꺼 같아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소영: 제가 고등학교 때는 광주의 인디 밴드들이 많았어요. 어디 연습실 가면 어떤 장르의 밴드가 네 다섯 팀은 무조건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중고등 밴드도 활발하게 활동했구요. 공연 보는 사람도 많고 대학교 밴드도 많고. 제가 그렇게 밴드들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제가 좋아하던 밴드들이 거의 서울로 갔어요. 그냥 서울 가야 음악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서울로 가고 광주에는 남은 팀이 거의 없었어요. 당시에 저희 보컬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 친구가 이제 내려오면 방학 때 밴드를 만들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음악을 하면서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하지 않았었고 그냥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좋았고 그냥 즐겁게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제가 다시 시작했을 즈음에는 예술인 복지재단이나 지원 사업이 많아져서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여 활동하는 팀도 있고 인디밴드들은 지원 사업보다는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경계에 있는데 지원을 받아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펀딩도 해봤는데 앨범을 제작하는 비용이 크다 보니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아요.

그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음악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디씬에 남아 있는 동료들인 것 같아요. 제 노래 중에 ‘기다리며’라는 곡은 저희 멤버 베이스가 만들고 제가 가사를 썼어요. 그 당시에 자주 함께 공연하던 밴드 세 팀이 다 여성 보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같이 공연을 하자 그래서 기획 공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팀들이 모두 해체됐어요. 서로 밴드를 유지하기 힘들 때 서로 손잡고 일어나주는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며 쓴 내용의 곡이에요. 지역에서 음악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인들의 교류 그런 것도 지원해주는 제도나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죠.

Q. 맞아요. 연결감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있고 20대 여성들이 민우회를 소개 받아서 오면 얘기하다 울어요. 너무 외로워서. 자기는 그 연결감이 너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너무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영 얘기 들으면서 그 때 그 울던 여성들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음악 하는 소영이 그래서 대단하기도 하고 지역에 소중한 여성 예술가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열악한 인디씬인데 코로나 이후에 공연들도 많이 없어지고..그 시절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소영: 확실하게 많이 줄었죠. 제가 음원 수입만 따로 통장에 모으고, 공연으로 얻은 수입 통장도 따로 관리를 해서 그 긴장비를 다시 사는데 쓰자 이렇게 했는데 거의 그게 줄어들었죠. 올해 조금씩 공연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음악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무엇보다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무대에서 주는 긴장감. 거기에 중독돼서 사는 것 같거든요. 관객들과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제가 하는 밴드 ‘러미앤러프’ 곡 중에 망가진삶이라는 곡 가사를 직접 썼는데 무대에서 느끼는 흥분된 기분하고 공연이 없는 지금 방에서 혼자 가사를 쓰면서 공연 무대가 너무 그리고 소중한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한 감정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죠. 최근에 공연을 했는데요. 월드 뮤직페스티벌이라고 ACC에서 하는 공연이 야외공연이었어요. 사람들도 많고 날씨도 좋고 다들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인디 밴드들의 무대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Q. 며칠 전 공연. 얼마나 다들 신나셨을까요? 관객들도 오랜만에 야외에서 너무 좋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게 그런 경험들인 거 같아요. 함께 소리지르고 함께 하는 것들.

이번 질문은 저희 민우회의 여성주의연극모임 시나페랑 함께 작업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작업하면서의 경험이 소영에게 어땠는지 궁금해요.

소영: 시나페랑 같이 작업한 곡 중 제 앨범에도 들어가는 곡이 두 곡 있어요. “가네 흐르네”라는 노래랑 “숨바꼭질”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한 걸 위주로 곡을 많이 쓰게 됐는데 민우회 시나페랑 곡 작업하면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주제로 해서 저는 제가 몰랐던 걸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특히 가정 내 성폭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많구나. 그 이야길 듣고 만든 곡이 ‘숨바꼭질’인데요. 숨바꼭질이 어떻게 보면 숨는 놀이인데 집 안에서 이렇게 숨을 수 없는 공간에 숨은. 그러다 서랍 속에 숨었는데 안 들어가지는 상황을 생각하며 썼어요. ‘가네 흐르네’의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주제의 극 작업이었는데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슬프고 그런 게 아니고 엄청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시간이 가는 것이 흐르고 시간이 가는 게 사실 그렇구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나도 같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노래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생각하지 못한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니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Q. 전 질문들과 연관되기도 하는데 음악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소영: 작은 카페였는데 거의 관객들이 바로 앞에 있을 정도로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친구들의 죽음 그것들이 저한테 엄청 큰 구멍을 남겨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사로 쓴 ‘사라지는 나를 봐’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관객들은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음악으로 이렇게 들으실 텐데 그냥 우울하고 좀 너무 가라앉은 음악들이다. 그러니 외부 공연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하고 다녔어요. 공연을 보던 여학생들이 갑자기 울어서 왜 울었냐 물으니 수능을 잘 못 봐서 슬펐대요 이 친구들과 나의 고통이 다른 데 이거 듣고 자기의 슬픔이 나왔나 보다. 그런 부분에서 음악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Q. 음악이 가진 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겠어요. 이걸 정말 궁금했던 건데 소영 주변에 여성 음악가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결혼하고 또 양육하면서 음악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소영: 이푸른솔이라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친구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저도 고민되는 지점인데 육아와 음악을 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의 상황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결혼이나 육아를

하면서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나 예술분야는 프리랜서가 많다 보니 예술 작업하는 시간에 대한 근로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고 지원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엄마가 제가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셨는데 그게 이제 음악을 사랑한다 이런 느낌보다 딸이 짠해 하면서 고생한다. 그런 식이죠. 오디션에 나왔던 무명가수 출신 박창근이라는 가수를 엄마가 좋아하게 됐는데 그분이 되게 무명이 길었다가 잘되는 걸 보면서 그 걸 저한테 투영해서 우리 딸도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이런 마음이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연했을 때 엄마가 오셨는데 공연 행사가 크고 공연이 마음에 들었는지 엄마가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사 먹으라고 용돈 주시면서 열심히 계속하고 있이라 하셨어요.

Q. 어머니가 밥 사먹으라고 용돈 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소영 어머니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지는 부분이네요^^ 그럼 소영이 생각했을 때 예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영: 물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어쨌든 예술인복지재단처럼 광주도 그런 단체나 뭔가 그걸 추진하는 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매끄럽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 자체를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던 오디션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참여하지 않으면 아예 혜택을 안 받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저도 최근에 고민이 많아진 게 인디 밴드들의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단체를 만들면 우리가 좀 목소리 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연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그런 에너지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은 예술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저와 같이 길을 가는 동료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다른 장르에서도 그런 사람을 보며 힘이 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플룻 공연을 갔었는데 선곡부터 그 공연을 엄청 신경 써서 만든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기 에너지를 오롯이 쓴 느낌. 그렇게 열정을 갖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도 뭔가 자극이 되더라구요. 그런 예술적인 동료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Q. 소영의 삶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장르나 혹은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소영: 첫 질문만큼이나 이 질문도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내 노래를 한번 다시 들어보아야 되겠어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쓴 가사 중에 “후회 없이 날아”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 음악을 늦게 시작을 하면서 남들보다 시작이 느리다. 20대부터 이렇게 해오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면서. 지금은 막상 마흔 넘으니 서른은 안 늦은 것 같은데 그 땐 그게 참 그랬어요.

남들은 이렇게 딱 직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만 길을 헤매느라 늦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가고자 하는 목표가 같고 끝이 같으니 어쨌든 목표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가봐야겠다. 20대 때 음악을 열심히 안 한 거를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 계속할 거니까 지금까지는 꼬불꼬불한 길이었어도 지금 남은 길은 직진으로 계속 가자 뭐 이런 가사를 썼어요.

Q. 소영 마지막 질문 답이 되게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20대 활동가들 보면서 그 재기발랄함.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센스 같은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왜 그 때 이 활동을 안 했을까. 난 뭐했을까 생각하거든요. 소영이 말한대로..꼬불한 길이든 직진이든. 우리도 후회없이 가보겠습니다.

12|오- 지|성|을| 겪|이|하-고
싹|어|던| 12|지|에서
소|현|으로!!

한소현(광주여성민우회 전 활동가)

그는 대학에 오면서 광주에 왔다고 했었다. 생의 처음으로 낯선 공간, 낯선 언어를 마주했었던..처음으로 망월동에 가보았고, 기분이 이상했다는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6년여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는 또 낯선 도시로 이주했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에서 여성단체의 활동가로, 경상도어를 쓰다가 전라도어를 쓴..그리고 비혼에서 기혼으로, 한 아이의 엄마로...그 경험들이 궁금했다. 그를 초대해 이야기를 청했다.

Q. 저희가 민우회 전 활동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한소현(이하, 소현): 저는 민우회에서 몇 년 일했는지 모르겠는데 6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 활동명은 미지라고 합니다.

Q. 활동명인 미지라는 이름에 뜻이 따로 있었나요?

소현: 그거 너무 부끄러운..그 때는 미모와 지성을 어떻게든 갖고 싶다 해서. 정말 널리 널리 아주 아주 많아요. 그래서 줄여서 ‘미지’라고 했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Q. 잘 어울렸어요(다들 웃음) 그렇다면 자신을 소개하는 키워드 세 가지가 있다면..

소현: 이 질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성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내야 할 때 그런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좀 성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신중한 편인 것 같아요. 신중해서 뭔가를 생각할 때 시간이 길게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유부단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월드(타로 카드 중, 월드라는 카드가 있음) 제가 육아를 하면서도 이걸 오늘 하루 안에 해야 된다 하면 꼭 그 틀에 맞춰서, 그걸 해야만 잠을 잘 수 있고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서 저는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하다는 카드인 월드 카드의 색이 아주 짙은 사람인 것 같아요.

Q. 아니. 그게 육아하면서도 가능하다는건가요? 안 그래도 다른 활동가가 소현이 보내준 사진을 보여주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거예요. 다들 놀랐어요^^ 저희가 기억하는 소현은 늘 뭔가 숙고하는 사람, 뭔가 오래 생각하는 사람. 회의시간이나 뭘 논의할 때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금 늦지만 무척 중요한 질문이나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기억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주제를 페미니스트 모먼트, 그 순간에 대한 건데 혹시 본인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소현: 저는 막상 활동하면서는 페미니스트라고 본인을 이야기하는 다른 활동가들에 비해 색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퇴사한 후에 어떤 뉴스나 이슈를 보면서 내가 페미니스트였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끔 뉴스에 기자회견 하는 게 보이면 뭐야, 나도 기자회견 자주 갔었는데.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Q. 피가 끓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소현 인생에서 페미니스트 모먼트라고 하는 어떤 장면이나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소현: 딱히 한 순간을 지목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막 처음부터 페미니스트여서 민우회 활동을 했던 건 아니어서 민우회 활동가가 된 것 자체가 페미니스트 모먼트로 제가 딱

들어서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수요 집회에 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수요 집회, 평화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차 점차 제 안에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조금씩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활동할 때 당시보다 퇴사하면서 그래도 내가 페미니스트로서의 감각, 색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더 하게 됐어요. 육아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tv는 안 보는데 뉴스만 조금 챙겨보거든요. 어떤 노동 이슈같은 것들을 보면 조금 더 구조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 들을 보면서 내가 페미니스트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금 제가 돌봄노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페미니스트로서의 경험을 더 체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육아하는 활동가들이 했던 돌봄 노동의 어려움, 여성들에게만 한정된 가사노동 같은 걸 현실에서 좀 더 느끼게 되었어요 예전에 성차별적이다라는 걸 잘 몰랐던 경험들. 집에서의 경험들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활동가로 살아온 시절 덕분인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Q. 민우회 6년차 활동가의 경험. 무시 못합니다. 절대.

그럼 지금 처음 양육자로서의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뭔가 느끼는 특별한 감각이 있으실까요?

소현: 그러니깐 약간의 책임과 부담이 좀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돌봄 노동에 막 들어선 건 아닌데 내가 부모라는 것에 대한 부담, 엄마가 되고 어찌 됐건 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존재가 딱 생긴 거잖아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런 거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애가 태어나고 기쁜 것보다 오히려 들었던 감정은 무서움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애가 울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기가 우는데 달래지지 않아서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무서운 걸 경험하고.. 오히려 점차 점차 이제는 좀 적응도 되고 하면서 보람도 있고 기쁨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오직 한 명에게만 많은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좀 쏟아야 되는 게 지치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Q. 그렇죠.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생긴다는 건 기쁘고도 무서운 일인 거 같아요. 장유진 소설가의 책 제목인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착안한 질문인데요. 민우회에서 일할 때 가장 기뻐던 혹은 슬프거나 좀 안타까웠던 경험들이 있었을까요?

소현: (소현은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쉼터인 다솜누리에서 일했다-편집자 주)일하면서 기뻐던 순간은 제가 지원했던 내담자들이 쉼터를 나가서도 잘 살아내는 모습들을 볼 때 기뻐고요. 또 민우회 활동하면서 기뻐던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활동가들하고 뭔가 기쁜 순간들을 나눴을 때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즐겁게 웃고 뭔가를 웃으면서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함께 기뻐했던 그 순간들이, 그런 모습들이 남는 것 같아요.

슬픔은요. 제가 아무래도 쉼터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떠오르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분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였어요. 이 분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 계셨거든요. (부모님이 분리를 한다는 조치 하에) 그 후, 제가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퇴소자 지원차 만나러 갔는데 쉼터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병원에서 약물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무기력함도 보이고, 졸린 듯한 모습, 제가 보았던 그 분의 에너지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재판도 결과가 좀 안 좋았거든요. 결국 그 가해자가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느꼈던 안타까움. 그 때 슬펐던 것 같아요.

Q. 내담자들을 지원할 때 회복되는 걸 보는 순간은 너무 기쁘지만 회복이 더디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지원하는 우리들 모두 안타깝죠. 그래도 그 시간들이 소현을 더 성장시키는 시간이었길. 아참, 소현은 고향이 광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광주로 왔다, 다시 돌아간 상황인데 어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을까요?

소현: 저는 광주가 성평등을 위해 노력은 해도 성평등 인식이 아주 부족한 도시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더한 도시 같아요. 여기는 제가 활동을 그만둬서 그런지 몰라도 (성평등이) 체감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버스 노선이 너무 적은 곳도 있고 정류장도 너무 띄엄 띄엄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이 곳은 차 운전하기에는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도로가 차 타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 어쩔 제가 여기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들이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도시마다 복지혜택도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곳에서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나 복지혜택 이야기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이 도시는 복지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약자들을 위한 정책인데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어렵고, 그런 점이 좀 부족한 도시인 것 같아요.

Q. 이야기 들으니 저도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이 떠오르는데요. 울산이 현대 중공업등 거대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노동자들 임금 수준이 높고 하니 도시가 너무 차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신호등 신호도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요. 차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서 아까 소현이 얘기한 대로 실제로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편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편한 도시라고 울산을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광주에 처음 왔을 때는 뭐가 제일 새로웠어요? 저는 상추 튀김.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 게 어찌나 새롭던지..

소현: 저도요 상추는 뭐지 했는데 오징어 튀김이 나오는 거예요.
순대에 초장도 놀랐어요. 콩국수에 설탕 넣는 것도...
(한참, 우리는 광주의 먹거리 이야기를 나눴다^^)

Q. 먹는 걸로 제일 먼저 그 차이를 느끼긴 하죠. 계속 먹는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지금 하는 돌봄 노동 중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소현: 살림은요.. 뭔가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청소는 제가 애가 태어나면서 안 할 수가 없고 꼭 해야
되는 거여서 청소기도 돌리고 매일매일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옛날의 방식으로, 혼자 살 때처럼 도저히 살 수
없으니 그렇게 약간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은
분리수거가 쌓여 있는 것도 못 보겠고... 제가 집에 계속 있어서 더
그런지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그걸 차마 못 보겠고 못 참겠는.. 그런 게
생겼어요. 계속 놔두면 어차피 이게 남편과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집에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오래 있다 보니 결국 할
사람이 제가 되기 때문이죠. 육아에서 제일 힘든 거는 제 시간이
없는 거. 쉴 때도 결국은 살림을 하게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몸살이 날 거 같은데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 제가 아프면 남편이 연차를 써야 하는데 연차를 2~3일 넘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쓰고 나와야 되는 그런 거라든가 제가 아프면 애를 돌볼 사람이 정말 없는 딱 그게 생각이 들어서 내가 편히 아플 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서러워지고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Q. 아픈데 제대로 아프지도 못하다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현재 주 양육자가 소현이고 보조 양육자가 지금 거의 없는 거죠?

소현: 네. 친정, 시가 모두 거리가 좀 있어서. 언젠가는 코로나 백신 맞고 저도 아프고 남편은 그 때 또 체해서 둘 다 아픈 적이 있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거예요.
한 명은 아픈데도 아기 젖병 물리고, 한 명은 병원 갔다 오고 또 돌아와서 밥 챙기고, 또 병원 가고 그때는 진짜..

Q. 생각만해도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럼, 자 페미니스트의 남편은 가사 분담은 잘 되나요? 에이. 남편 이야기도 들어봐야하는데..(다들 웃음)

소현: 일하고 와서 젖병을 씻는다거나 빨래를 갠다거나 등 할 일을 하거든요. 근데 (파트너의) 노동 시간이 좀 길어요. 아침 7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오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길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해준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게 성이 안 차죠. 남편이 주 야간 돌아가는 노동을 하다보니

남편이 도와준다는 말을 안 쓰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도와주는 수준 밖에는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노동시간이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Q. 맞아요. 성평등해지려면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이 줄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노동 시간이 너무 긴 게 문제죠. 달달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게 사랑이 아니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순간이 되어도 되구요. 지금 가장 그리운 게 뭡까요?

소현: 제가 가장 그리운 건 늦잠을 마구마구 잘 수 있었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제일 그리운 것 같아요. 아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했는데도 아기 자면 집 치우고 또 남은 집안 일을 해야 하니..지금은 아기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놀러 가는 것도 어렵고 산책을 나가도 이게 자는 시간이 있고 먹는 시간 정해져 있다 보니 나갔다가도 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밖을 나가는 게 어려워진 게 지금 가장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인 것 같아요.

Q. 임신하고 아이 낳을 때까지가 딱 코로나였잖아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백신도 못 맞지 않았나요. 그래서 임신부들 엄청 조심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 어땠어요. 코로나 시대에 임신부로 산다는 것.

소현: 다중이용시설을 못 가게 되었을 때...저는 백신을 못 맞아서 마트도 못 가겠는거예요. 바로 방역 조치가 바뀌긴 했지만..그 때는 외식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뱃 속 아기에게 영향이 갈 수도 있을꺼 같고 해서요. 카페도 못 가고. 갇혀 있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산후조리원 안되면 어떻게 하나 했어요. 나는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산후조리원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 코로나 걸리거나 하면 나는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고. 진짜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것 같아요.

Q. 임산부들의 정신적 부담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고생한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래도 생활하면서 좋은 점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물어봐서 ^^

소현: 집에서만 있는 게 조금 답답한 감도 있는데 실은 편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익숙한 곳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런 게 조금 규칙적으로 일상이 돌아가는 게 조금은 좋은 것 같고 퇴사하고 처음 쉬었을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뭐랄까. 회사 일을 떠나서 이렇게 딱 쉬고 있는 게 좋기도 하고 뭔가 돌아다니는 것도 좋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시간이 가면서 다시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Q. 음..퇴사하고 싶다 ^^ 소현이 사는 곳에도 여러 여성 단체들도 있고 또 굳이 여성 단체가 아니더라도 NGO 활동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다시 단체 활동이나 일을 해볼 생각이 있어요?

활동가가 아니어도 회원 활동도 괜찮고 혹시 그런 의향이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소현: 아까도 말했지만 기자회견 하는 모습 보면 저도 그림췌.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 있는 여성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쪽에 민우회의 활동과 비슷한 평화적인 그런 활동도 하고 여러 면에서 민우회의 색채가 많이 비슷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 보면서 나도 그런 곳에서 일했었는데 생각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회원 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우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과도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 낳고 좀 크면 내가 뭘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좀 해볼지 등등을 생각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나는 무조건 일을 하러 나가겠다. 집에서 계속 이렇게 쉬는 게 가정 경제에도 그렇고 집에 있다가 어느 시기를 놓치면 계속 주부로서만 살게 되니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일 하고

싶다고 하니 남편도 격려해줬던 것 같아요.

Q. 이런 말은 녹음해서 고이 보관해둬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민우회 회원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페미니스트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나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소현: 결혼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이를 낳는
건 아주아주 신중히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만은 아닌 거 아시죠?

각 각의 삶이 주는 기쁨과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이
곳에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르'을 지-키-고
싫-어-던 사-라.
무-도!

김진희(무도/광주여성민우회 회원)

광주여성민우회는 올해 풋살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그 참여자들을 기반으로 풋살 소모임 'FC 킱킱'을 절찬리에 운영 중이다. 가끔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땀에 푸욱 젖고 빨강게 달아오른 얼굴이지만 얼굴들만은 신나 보였다.

소모임에 참여하는 활동가가 말했다.

이 재밌는 걸, 남자들만 하고 살았다니^^

축구하는 여자들의 탄생이었다. 민우회 신입회원이자 FC 킱킱 단원인 김진희(이하, 무도)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그를 초대했다.

Q.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 먼저 드릴게요.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3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무도: 음. 제 이름으로 살고 싶은 사람 이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기록을 남기는 사람 또 하나가 뭘까. 뭔가 바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사회적 인간!

Q. 저희의 프로젝트가 페미니스트 모먼트를 나누는 시간이라, 혹시 무도는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너무 어렵다면, 내가 뭔가 나를 여성이라고 자각하게 된 순간도 좋습니다.

무도: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페미니스트라거나 하는 느낌은 그닥 강하지는 않지만 아주 아니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실은 이름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한 20대 초중반 정도에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전에는 밤새도록 술도 같이 마시는 친구였었는데 임신을 하면서 술자리를 할 수 없게 되니 이상한 느낌도 들고 아기를 낳더니 본인의 이름이 아닌 그 아이의 엄마로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도 안 하고 했던 상태였으니까 너무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왜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아이의 엄마로 살고 싶어 하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좀 충격이어서 나는 내가 나중에 아기를 낳더라도 내 이름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결혼하고 나서 좀 더 강해지면서 돌잔치나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누구의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제 이름을 똑바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모임에 가도 마찬가지로 김진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항상 프로필이나 이런 데도 제 이름을 썼죠.

그때는 아기를 키우고 있더라도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정도였는데 결혼 전까진 남편이 권위적이라거나 가부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맘에 맞지 않은 부분은 막 싸워서 쟁취해 나갈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우회나 여성여성운동단체에 소속된 분들이던가 영화 B급 며느리의 주인공 보면 적극적으로 바뀌 나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었죠.

다만 조금 바뀐 계기는 제가 결혼 5년 차에 암 수술을 하고 한 9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됐을 때 남편이 다시 예전에 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엄청 풍기는 거예요. 병원 생활하기 전에는 어땠냐면 시댁은 항상 일주일에 한번씩 가야 되고 그것도 식구들 다 같이. 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족 행사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전처럼 하기를 바라는데 이제는 에너지도 안 되고 그렇게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남편과 그 문제로 한 반년을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해서 떨쳐내는 거를 해나갔어요.. 그 정도가 저한테는 최선이지 그 이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만 봐도 투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Q. 그 반년의 시간도 대단한 투쟁의 시간이었던 거 같은데요. 그럼 저희 민우회의 회원이 된 직접적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도: 여성 민우회는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기도 했었던 여학생회 소속이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 쪽 민우회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민우회의 이름은 듣고 있었지만 잊고 살았었죠. 여성관련 이슈 뉴스등에서 종종 나오니까 존재를 모르진 않았지만 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민우회 활동가 sns 보고 풋살 소모임인 킁킁킁 가입을 하면서 민우회 가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거예요.

Q. 원래 축구 같은 운동을 하실 생각이 있으셨나요?

무도: 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이제 축나는 게 느껴지잖아요. 일산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20대 중반이었는데 회사에 갑자기 마라톤 동호회가 생겨서 가입을 하게 됐거든요. 창립총회 때 60이 넘는 어르신이 마라톤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분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운동장 한 바퀴도 못 도셨다고 해요. 차츰차츰 자신이 어떻게 달려야하는지, 똑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고민하면서 달리다가 폴코스까지 완주하시게 된 과정을 말씀해주셨어요. 당시엔 서울 마라톤 협회 같은 곳 회장이나 이런 걸 하실 정도로 경력이 쌓이신 분이 됐죠.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몸을 살피가며 운동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등산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육아를 하면서 모든 운동과의 인연이 끊기고, 요양병원 생활하면서는 등산이나 이런 걸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생활로 이어지진 못했죠. 계속 건강한 몸에 대한 갈증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바퀴가 달린 거나 기구를 이용한 운동보다는 맨 몸으로 하는 걸 훨씬 편해하는 편이었거든요. 작년 초에 김흔비 작가의《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라는 책을 읽었고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혼자서 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었고 fc에 들어올 생각은 없었는데 민우회에서 한 풋살 원데이 클래스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죠.

건강하고도 싶었고 새로운 커뮤니티가 필요했어요. 그전에 오랫동안 해왔던 커뮤니티들의 갈등상황, 맘 편하게 지낼 수 없고 마주치기 싫은 상황들이었거든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약간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게 있는 사람이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는데 민우회원들의 건강한 에너지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가입으로 이어졌구요.

Q. 그럼 축구는 저희 민우회 오시기 전부터 하신 거 같은데. 맞죠?

무도: 2021년 초에 막연히 축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연말쯤에 다시 김혼비 작가의 《다정소감》을 읽고는 40대보다 50대에 빛나는 체력을 갖고자 맘을 먹게 됐고 아들이랑 연말부터 워밍업처럼 방학 때부터 놀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랑 공을 사 들고 운동장에서 놓고올해 1월 1일부터는 아예 저녁마다 체력 훈련을 한다고 맨몸 운동을 시작했어요. 윗몸 일으키기나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첨엔 딸내미는 하기 싫다고 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격리생활 하면서 아들이랑 저 둘이서만 하는게 부러웠던지 합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한동안 계속해서 저녁마다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들이랑 나가서 공놀이 좀 하고. 근데 킁킁하고 나서 오히려 개인 연습을 못하고 있죠.

Q. 그럼 처음부터 같이 축구를 했던 아드님은 엄마에게 따로 이야기긴 없으신가요

무도: 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에너지가 좀 딸리는 스타일이어서 저녁이 돼야지 에너지가 채워지거든요. 가끔 저녁 훈련에 같이 가는데 오늘 실까

이러면 저는 가고 싶은데요 하며 저를 가게 만들어요. 아들이 루틴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스타일이라서 저를 운동하게 만들어요. 아이가 운동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데 의외로 축구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 나중에 엄마가 축구교실 같은데 넣어주면 할 거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서 좀 놀랐죠.

Q. 뭔가 아드님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해주셨네요. 저희 풋살은 저녁에 하기도 하고..풋살 없는 일상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무도: 올해 전반기까지는 해야만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가끔 회의하러 가거나 이런 일정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집에서 쉬는 편이에요. 보통 집안일 하고 쉬어요. 많이, 원래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결혼하고는 책이 안 읽히더라고요. 사실 임신하고서부터 책 들고 다니는 것부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책조차 너무 무거워서 아주 가벼운 가방만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재작년 정도부터 책을 다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읽고 기록하는 것부터 조금 조금씩 시작을 했어요. 올해도 예전에 책 읽기 모임 같이 했던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은 목록을 올리자고 해서 꾸준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교 독서회도 시작해서 독서회 선정 책도 읽고요. 최근에는 민우회 회원이신 김항심 선생님이 따님이랑 산티아고길 걷고 내신 여행기를 읽었어요.

Q. 수술을 했을 때 뭔가 인생의 큰 변화를 느끼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암이라는 것이 아무리 흔한 질병이지만 나한테 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무도: 진단 받을 당시에는 되게 의연한 척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겁을 많이 먹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진짜 죽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육아하고 겹치다 보니 이게 육아 피로인지 아파서 생기는 피로인지가 헷갈려서 오랫동안 묵혀놨다가 사태가 심각해진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 친구 남편이 같은 암으로 투병하다 죽어서 저도 최후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쉬움을 남기지 말자. 그 당시에 ‘다음’에 대한 기약을 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좀 더 잘 살자는 목표가 생겼어요. 하고 싶은 일이나 욕구들도 미루지 말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를 소모시키는 거에 대한 차단, 뭔가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기도 했어요. 결정적으로는 남편이 워낙 고집이 세다 보니까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주장을 좀 더 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게 안정적이 되면서 관계도 더 나아졌고 두 사람 다 심리적인 안정도 찾게 됐고요. 그전에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솔직하게 말하게 되면서 서로 맘에 안 들었던 것들을 고쳐가면서 좋아졌어요. 전에는 남편이 저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서도 맞춰주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배려를 해준다거나 서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Q. 건강한 몸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태어났을 때의 몸으로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없다라는 말을 책에서 봤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이전 몸과 지금의 몸이 이제 달라진 걸 본인이 제일 아실
테고. 아팠었던 내 몸을 생각할 때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더라든지 내
몸을 뭔가 싫어하게 된다는지 그런 건 없으셨어요?

무도: 제 몸을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암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워낙
비실비실했어요. 저희 엄마가 임신 중반까지도 저를 임신했던
걸 모르는 상태였었대요. 그때가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가장 안
좋았던 상황이어서 특별히 태교를 한다거나 아이를 위해서
건강을 챙기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영향이 있었던지 저는 기본적인 골격부터 모든 것들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장기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쭉쭉 커본 적도 없고 건강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몸이었었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건강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가족들을 건사해야 하면서는 내 몸에
맞춰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무리를 하게
됐었지요. 산도 잘 올라가고 싶고 달리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에너지가 떨어져 못하는 일이 많다보니

결국에는 심리적인 부분,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은 병원 정기검진 때가 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지속적으로 낮잠을 필요로 하는 상태여도 불안하고요. 사실은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몸이 필요한 거죠.

Q. 풋살 하면서 초반에는 한 1분만 뛰어도 10분 뛴 것처럼 너무 헉헉거렸는데 지금은 그냥 10분 15분 그냥 뛰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고 많이 좀 좋아진 거 느끼시지 않나요?

무도: 아직까지는. 오히려 처음 원데이 클래스 했을 때는 안 아팠어요.

그때는 덜 뛰기도 했었고 저녁마다 맨손 운동을 하던 시기라 안 아팠었는데 또 한참 안 하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근육이나 이런 게 좀 덜 단련되기도 해서 그러니까 뛸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달리기나 이런 것도 해야지 싶은데 날씨가 안 도와주네요. 비가 오거나 햇빛이 강하거나. 가을엔 꼭 뛸 겁니다.

Q. 가족을 챙기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경제적인 걱정이나. 그런 신경 쓸 일 전혀 없이 온전한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무도: 작년에 그런 날을 하루 보냈어요. 제가 김항심 선생님 책 낸 출판사 관계자하고 예전부터 다른 모임에서 만나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었는데 그분이 완주에 계셨어요. 작년 생일 선물로 완주 여행을 혼자 가겠다. 가족들이고 뭐고 다 떼놓고 나 혼자 가겠다 해서 그 친구를 만나고 계속 얘기하고 쉬는 하루를 보내고 왔었어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면서 서울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서울을 못가게 되더라고요. 아기도 어린데다가 남편도 보내주지도 않다보니 서울을 못갔었어요. 그러다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여동생을 휴직시키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항암 치료 전날 먼저 가서 친구들을 만나요. 오랜 친구들을 한 명씩 소환을 해서 한 명이나 아니면 팀으로 소환을 해서 오랜만에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만들었죠.. 이번 9월에도 서울 올라가면 또 그때 한 팀 만나기로 했었어요.

Q. 치료를 두 번 받으시는 거네요. 항암 치료 전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치료를. 그다음에 병원치료를..

무도: 그랬었죠. 지금도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요구하게 되고 남편이 막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나는 하루 휴가를 서울로 올라갔다 오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온다든가 도서 전시회나 이런 데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저를 위해서 합니다. 사실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음악회 가는 건데 주중 저녁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려운 것 같구요.

Q.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네요.

무도: 네, 항상 필요해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길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작년 완주여행 때 밤에 갑자기 가족들 생각이 나 쓸쓸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척 좋고 친구와 함께 한 시간이 좋았지만 밤에 혼자 자려니 의외로 쓸쓸한 거예요. 또 돌아오는 길에 책 한 권 읽으면서 눈물 짜고 이러면서 좋긴 했었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게 의외였어요. 정말

요양병원에서 9개월은 저한테는 굉장히 휴가 같은 시간이었어요. 일단은 밥 안 해도 되고 가족 안 챙겨도 되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니까 저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1년을 채우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9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첫째도 6살밖에 안됐고 둘째는 세 살. 둘째 막 젖 떼고 검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째가 많이 어렸죠.

남편 같은 경우는 애들이랑 시댁에 가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가 다 감당한 게 아니에요. 올해 또 한 번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봄이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작년 봄에는 한의원 가서 면역 증진되는 약을 한번 먹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 아들 때문에 거의 첫 한 달을

격리생활을 했고 3월에 전 가족 확진되고 격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낮고 얼마 안되서 갑자기 손에 조그만 뾰루지가 났는데
그걸 터뜨렸다가 거기로 세균 감염이 돼서 2주 동안 입원을
해야했어요. 그때가 딱 원데이 클래스 하기 전쯤이었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시댁 도움 없이 온전히 다 책임을 졌어요. 정말
많이 나아진 거죠. 덕분에 저도 입원하는 동안 좀 더 맘 편히
코로나 이후로 누적되어 온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보낸 것 같아요.

Q. 아까 말씀하신 키워드 중에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혼자 글을 쓰고 계시는 건지요?

무도: 지금은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SNS에 글을 쓰고 일기도
써요. 저는 일기장이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도
병원에서는 날마다 기록을 했어요. 글은 안 쓰다보면 잘 안
써지거든요. 글쓰기는 계속하고 싶어요. 잘 쓰려고 하면 맘만큼
잘 써지지 않을 때도 많지만 뭔가 기록을 남기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기록을 남겨놓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싶고요. 그
시기를 관통하고 난 후 돌아보기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도 글쓰기
같아요..

제가 육아 모임을 했는데 1년 동안 행사나 일정을 하고 나면
밴드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간 활동에 대한 후기나 보고
같은 걸 자발적으로 했었어요.. 1년치를 모아놓으면 그게 꽤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딱 보이고. 그런 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사서이기도 했지만 홍보팀 일도 했거든요. 퇴사하고 나서는 이상하게 홍보성 글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쓰게 되고 요청이 오기도 해요.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기록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책 관련 모임을 자주 했었는데 그 모임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을 했고, 관심사가 뭐였나, 어떤 책을 읽었나 등등 결산 프로그램 같은 걸 했어요.. 몇 년 했더니 안 하면 허전해서 매년 결산처럼 1년을 돌아본다거나 최소한 1년 동안 책 읽던 걸 목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런 기록들이 쌓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Q. 그럼 책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드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무도: 그런 마음도 있긴 해요. 어렸을 때부터 소설가는 못되도 수필가는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작년 여름에 만난 출판사 친구도 글을 쓰라고 자주 얘기하지만 주제를 딱 담아서 쓰는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책을 쓸 엄두까지는 안나요. 하지만 글을 쓰는 건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네 글은 잘 읽힌다. 특유의 리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곤 해요. 글 쓸 일이 있으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Q. 저희 민우회에서 통신문이 한 세 달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무도에게도 곧 원고청탁을...^^

1년 뒤에 나를 상상해 보신다면 뭘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무도: 아직 그렇게 단기간으로는 생각을 잘 못 하겠어요.
작년에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은 욕구, 밖에
나가고 싶다는 욕구가 많아서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뒀음에도
내가 아이들에게 전념하지는 못했구나 싶더라고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제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거든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대학교 선배가 너 다시 나중에 사회로 나오려면 야구르트
아주머니 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애들 학교 보내고 애
키우면서 대학원도 다니고 해야지 그런 꿈을 꿴었죠. 아기를 낳고
키우다보니 거의 꿈같은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는 온전히 제 건강과 저를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의외로 계속해서 뭔가직책을 맡아야 했었어요. 책임감
때문에 온전히 저를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작년부터 소원이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해를 만드는 거였어요.
올해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일단은 의무감을 가져야 했던 일이 공식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고, 축구나 이런 게 저를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독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오지라퍼 같은
스타일로 살았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온전하게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전에는 되게 조급했던 것 같아요. 밖에 다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작년에야 하게 됐어요. 내년까지는 좀 더 저 자신한테 집중할 생각이예요.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희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Q.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혹시 풋살처럼 또 있었으면 하는 모임이 있다면 될까요?

무도: 원한다고 하면 여성 책 읽기 모임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하고 관련된 책 읽기 모임도 좋고 여성들이 쓴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글쓰기 모임이나 이런 게 생기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을 위한 더 많은 모임이 생기길 바랍니다.

역경과 분노를 해방감으로 연결하기

이희영(아시아여성네트워크 반상근)

그를 처음 본 건 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활동가의 sns에서였다. 2017년 5월 17일. 조그마한 체구의 여성이 자기 몸집만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기억하자는 문구의 피켓이었다.

그 날의 인상을 잊기가 힘들다. 혼자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용기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그는 그렇게 우리와 연결되었고 #미투 말하기 집회에서도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버스가 서울에 왔을 때는 신학대생의 이름으로 연대의 발언을 해주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건 ‘용기’이고 ‘당당함’이었다. 그의 원천 또한 궁금했다. 늘 균열을 내온 그를 초대해 이야기를 청했다.

Q.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희영: 저는 현재 신학생,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아 여성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아시아 여성들을 돕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프로젝트를 신청해 갑작스레 정규직이자 반상근으로 일을 하게 된건데요. 앞으로 1년 할 거구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있고요.

Q. 방금 다양한 일의 분야를 소개해주셨는데요. 희영 님 개인을 소개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뭘까요?

희영: 사실 저는 제 이야기할 때 꼽는 딱 세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열등감이었던 제가 계속 평생 고군분투할 수 밖에 없었던! 근데 이제는 저의 정체성으로 확장된 세 가지가 “광주, 여성, ADHD” 이렇게 3개예요.

이 3가지가 저의 굉장히 큰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도 저한테는 매우 크지만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저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저의 밑바닥, 바탕 같은 것이라..

Q. 희영이 뽑은 그 정체성에 대해 더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희영: 요즘 청년 여성들의 ADHD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꼽았던 이 세 가지가 저의 열등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먼저 지역-저는 항상 지역에 사는 거에 대한 열등감,

그러니까 광주나 호남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정말 많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열등감이 있었고 언제나 서울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어렸을 때부터, 요즘 단어로 명예남성적인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성스럽지 않았고 또 관심도 정치나 이런 데에 있었고 또 첫째로서 집에서 엄마가 밀어줬던 것 때문인지, 그러니까 ‘여자라서 안 돼’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또 사실, 여성들하고 그렇게 대화가 통하지도 않았어요.

학창시절에 제 관심은 게임 같은 것들이어서 남성들하고 어울려 지내면서 그 상황에 대한 뭐랄까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뭔가 남자들한테 어떤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때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 동시에 또 그게 너무 힘들고 혐오스러운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애들하고 달라 이런 말에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어쨌든 칭찬받는 기분도 동시에 들었으니깐요. 그런 상태에서 페미니즘을 만나고 크게 각성하게 됐습니다.

ADHD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해력은 좋았던 게 기존 ADHD를 겪는 사람들과 달랐던 점인 거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적응하고 잘 산 건 학습 능력 덕분이라고 했거든요. ADHD 특성이 뭐냐면 지금까지 밝혀진 신경학적 원인은 전두엽발달이 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이 생성이 잘 안 돼요.

도파민 성분이 사람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데 이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뭔가 일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변화를 주기도 어렵고 또 이런 점이 있다보니 굉장히 흥미롭고 자극적인 일이 아니면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가 산만하고 계속 새로운 자극을 쫓아다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항상 새로운 일에 금방 질려했는데 한편 학습 능력은 좋으니까 다재다능하면서도 뭐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거죠.

그런데 제가 ADHD인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이게 ADHD의 정체성이었던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이 ADHD를 제가 즐거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제가 사회가 말하는 성취를 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대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게 된 것들이 크다고 생각해요. 뭔가 높은 어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평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점들이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서 사실 사람을 볼 때 되게 배경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는 습관이 되게 많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열등감에서 저의 정체성으로 회복하게 됐을 때 제가 알게 된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사람 또한 그 존재 자체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능하게 해준 것이 제 ADHD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내가 성취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넓게 세상을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해.

Q. sns에 ADHD 관련한 진단 받고 나서 쓰신 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진단을 받고 맞아 나 이래서 그랬어라고 자기 해석을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하나의 나의 질병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희영을 섭외할 때 희영을 저희가 처음 알던 때에 대해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 때도 희영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1주기 때 광주에서 피켓을 든 한 사람이 있었다는 소식을 보았고 누군가 했는데 그게 희영이었거든요. 혹시, 그 때 이야기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희영: 사실 강남역 사건이 이 전부터 제 안에 약간의 각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글을 읽기 시작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어떤 성평등 의식 자체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회 구조 안에서는 이에 대한 언어는 없었던 거죠.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알음알음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에 딱 강남역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강남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지역은 소외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저에게 강남역은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저 여자가 나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강렬한 경험을 했어요. 사실 강남역, 특정한 장소가 아니어도 우리는 어디서나 경험하잖아요. 저도 그 사건 몇 주 전에 교회 사역을 하고 밤 10시쯤 집 앞에서 술 취한 남자에게 좀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협을 당하고 나서 제가 처음 했던 생각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

뭐 이랬으면 나한테 그랬을까'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강남역 사건을 지나오며 '내가 밤늦게 돌아다닌 게 잘못이었나' 밤 10시는 제게 폭력을 당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인생의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종교생활을 지키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저의 경험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강남역 사건 1주기가 됐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선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광주는 소식을 모르겠는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몇 주 전부터 집회가 없으면 나라도 혼자라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좀 용기가 안 났어요. 총장로에 있던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고 있다가 예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있던 우드락에 문구를 뽑고 그냥 나간거죠. 그냥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또 무서워서 금남 공원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5.18 전 날이었는데 실은 저는 그 날 전야제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심지어 제가 문구도 뭐라고 썼었냐면 "광주 사람이라서 죽었던 5.18 전날 하루 전 여자라서 죽었던 강남역 사건을 추모하는가" 였어요. 누가 보면 5.18 전야제를 노린 것 같았겠지만 정말 우연이었어요. 예라. 모르겠다라며 나간 그 때 저를 인상적으로 보셨던 현재 광주아시아네트워크 황정아 대표님을 만났고, 정말 갑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Q. 정말 그 날 하루가 나비효과처럼 현재 희영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네요. 황정아 대표님과는 미얀마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요.

희영: 그렇죠. 황정아 대표님이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나간 자리였는데, 제가 당시에 불쾌한 성적 접촉을 겪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황정아 대표님이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통역 한 번만 도와달라 해서 미얀마에서 활동하다가 5.18 기념재단에 인턴하러 오신 분과 만나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 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 이야기, 흐름 이야기하면서 그 분과도 이야기의 물꼬가 터졌죠.

미얀마와 한국의 젊은 두 페미니스트의 역사적 만남이었던거죠.(다들 웃음) 그리고 아시아 여성들을 위한 활동이 뭘까 이야기가 무르익으면서 미얀마 여성들과 이제 첫 연대 작업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게 저한테 너무 의미 있었던 게 사실 강남역 사건 뒤로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장 어려웠던 건 뭔가 너무 마음은 미치겠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근데 그 분노와 미치겠는 에너지를 이제 아시아 여성들과의 연대로 사용하면서 제 분노의 힘이 갈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Q. 페미니즘이 어쨌든 간에 계속 여성들과 타자들과의 연결감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내가 억압 속에 있었고 내가 여성이라는 그 이유

자체로 그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타자들의 고통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감하게 되고 연결되고자 하고.. 희영의 분노가 길을 찾았던 그 순간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박수 쳐주고 싶네요.

실은 희영의 정체성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혹시 신학을 배우게 된 계기나 이후 계획 같은 걸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희영: 진짜 교회라는 공간에 대해 참 고민이 많이 되게 하는 게 저희 엄마에게는 처음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불러준 곳이었던거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여성한테 무척 다층적이예요. 평생 저는 저희 엄마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제가 첫째라서 희영이 엄마 그리고 약간 줄여서 희 엄마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자식을 매개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니까 다 희영 엄마예요. 엄마의 이름을 들을 일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처음으로 엄마의 이름을 듣기 시작했어요.

영미 집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이 여성에게 되게 해방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억압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을 하고 여성이 자기 실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걸 착취해내니깐요. 이게 교회 공간의 특징인 것 같고요.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의 역사 자체가 굉장히 여성 해방적이었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 여성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준 곳. 여자들한테 이름을 주고 교육을 받게 해준 곳. 광주 양림동 쪽 옛 예배당을 보면 남자랑 여자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되지만 여자들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기억자 구조를 만들고 벽을 쳐서 여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더라구요. 여자들에게도 공간을 내어준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방언기도의 경우, 어떻게 보면 약간 샤머니즘적인 모습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저는 여성의 경험 안에서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많고 연구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교회가 주는 어떤 그런 체험들이 언어가 없는 이들에게 언어를 주는 체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의 고통이나 한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원래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여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울어요. 엄마도 그렇게 울고.. 소리를 지르고 진짜 미친 사람들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여성들이 뭔가 견딜 수 있게 해줬던 건 아닌가 하는거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여성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만 멈춰있게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건 지도자들이 여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 언어가 없는 자들이 뭔가 자기를 표현할 구멍을 찾았지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힘까지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해석을 스스로 해낼 힘은 주지 않고 자기들이 해석해버렸어.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걸 해석해버리면서 그 의미를 저는 가져가 버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으로 여자라서 리더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곳이 교회였어요.

Q. 참 복잡한 공간이네요. 교회라는 공간이..그런데도 신학을 공부하기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희영: 제가 강남역 사건 이후에 거의 폭주하듯 사니깐 목사님이 저한테 네가 그렇게 힘들면 여성 신학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해주셨어요. 마침 0000대학교에 여성 신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니깐 네가 한번 거기 가서 배워보라고 하신거죠.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신학교에 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교회 현장하고 인식 차이가 10년 아니 20~30년은 다른 것 같아요. 신학교 갔더니 되게 해방적이었어요. 교수님이든 현장에 지도자든 다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긴 해요. 그니까 눈에 보이는 평등은 없어요. 그래도 교수님들이 이제 외국 유학다녀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교수님들이 최소한 뭐가 있냐면 영어로 표현할 때 god을 he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구린거다라고 하는 정도는 되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해방적이었죠.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저희 교단 쪽에 동성애 광풍이 불었어요.

그 것과 함께 또 여성신학을 하시던 교수님이 학교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신학 공부를 저는 할 방법을 잃었지만 적어도 현대 신학 수업 필수 수업에서 여성 신학을 한 꼭지 다루고 있기도 했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여성주의 예배를 제안하신 것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치만 그런 광풍 가운데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이쪽에 대해서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학교 이유가 없어져서..

그런데 미얀마 활동가가 초대해 성공회 신학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채플실에 한 50명 앉아 있는 자리에서 앞에 갑자기 서래요. 맨발에 파란 머리에 대충 원피스를 하나 입고 갔는데 네가 왜 여잔데 전도사를 하고 있는지, 사역을 하고 있는지 말하라고 하는거예요. 그래도 제가 자리 깔아주면 말은 잘하더라고요.(웃음) 미얀마가 여자 목사나 신부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굳이 그게 미얀마에서 필요하니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고기가 맛있다고 내가 만약 양한테 고기를 먹이면 되잖나.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먹여야 된다. 그래서 여성 성도들에게 필요한 걸 아는 여성 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40분 정도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여자 사역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대부분 예상했던 거는 되게 백발의 백인 여성이였대요. 그런데 20대에 파란 머리, 키 조그마한 아시아 여자애가 온 거예요. 그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대요. 그게 그래서 내 존재만으로도 어떤

세상에 균열을 낼 수가 있구나 이런 가부장적인 세상에 균열이 될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종교인으로서 사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신학교로 돌아갔는데 원래 여성 신학 공부하려고 그냥 그냥 간 건데 이제는 목사의 어떤 길을 가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전 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좀 포기하긴 했어요. 교단에서 동성애 문제가 크게 거론되고 하면서 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민우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버스가 광주에 왔을 때 발언자로 초대해주셨었거든요.

제가 신학생이라는 위치로 발언을 할 때 가지는 그 상징성. 힘. 그게 제게 너무 소중했어요. 실은 제가 뭔가 경계선에 있어서 사실은 외롭거든요. 발언하기 바로 전에 공연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그때 퀴어 퍼레이드 때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때 저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울었거든요. 저희들도 퀴어퍼레이드 가서 그 장면 다 봤고요. 그러면서 되게 약간 그 미안함과 어떤 소외감과 외로움. 이런 경계에 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 그렇지만 그렇게 경계에 있기 때문에...그런데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경험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신학생이라는 그냥 그 신분 하나 때문에 교회의 언어로 다시 한번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줄 수 있는 어떤 경험이요.

아침, 그 때 저희 학교에 사직서 내신 교수님이 교단을 좀 새로 세우려는 계획으로 모임을 꾸리셨어요. 그리고 저도 초대해주셔서 함께 하는데 그 연대 모임은 정관에 아예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연대하겠다고 적시했어요. 많은 기성교회들이 세습 문제 등으로 문제를 앓고 있어요. 이쯤이면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그 교수님이 하시는 게 약간 종교 개혁 같다 해서 흐름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저한테 큰 위로가 돼요.

Q.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개인들을 계속 초대해 주는 방식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희영: 저는 진짜 강남역 사건 이전에는 진짜 개인이었어요. 그냥 광주에 사는 시민이라는 느낌도 없는 그냥 개인이었어요. 그냥 사람 한 명. 근데 그 강남역 사건 때 1인 시위를 한 것이 이 지역과 연결이 된 첫 경험인 것 같아요.

그냥 난 답답해서 나왔는데 지역과 연결이 됐고 그 경험 때문에 또 초대해 준 곳에서 누군가랑 연결을 시도하니까 또 연결되고 연결되고 그래서 그 연결이 다시 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뭔가 건딜 수 있게 해주고 좀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Q. 실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의 어떤 관점 혹은 그들의 네트워크로 성평등한 세상에 어떻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거를 만들고 계시네요. 훌륭하게^^

희영: 저희 위원회 이름도 그동안 있는 위원회하고 좀 다르게 하자 고민하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중심이야 그러면서 지역위원회 말했는데 그게 굳이 필요하냐고 자꾸 그러셨는데 제가 끝까지 지역 위원회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지역위원회, 젠더 섹슈얼리티 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사회적 문제도 함께 하고 기후위기 문제에도 응답하는 위원회도 만들고 있어요. 저희 무척 재밌게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인 시스템이나 제도로 다룰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시스템은 인간대 인간의 어떤 그게 좀 안 되잖아요. 차갑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좀 종교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종교가 감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람 안에서 어떤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진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힘 그러니까 어떤 그게 정부나 시스템은 할 수 없는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회복하는 게 종교가 살길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니까 맞아 종교는 이런 걸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거를 다시 살리고 싶다고 생각해요.

배우고 깨지고, 다시 회복되는 지그이 나의 '페미니스트 프로젝트'

말리(전남대 여성주의 동아리 팩트(F;ACT))

2016년 강남역 화장실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여성이 살해되고 한국사회는 들썩였다. 많은 sns 공간에서는 그가 나였다는 고백과 함께 본인이 경험한 폭력 피해 경험을 쏟아냈다. 그와 함께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라는 고백 또한 sns를 뜨겁게 달구었다.

많은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자는 흐름 또한 함께 나타났지만 그만큼 대학 내 백래시도 만연한 것이 사실. 가까운 전남대학교에 페미니즘 동아리가 생겨났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그만큼 그들이 겪어낼 힘듦 또한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 내 페미니즘 그룹의 전남대 여성주의 동아리 팩트(F;ACT) (이하 팩트)의 말리와 친구를 초대해 이야기를 청했다.

Q. 저희 회원으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공간에서 만나니 괜히 새로운 기분이 드네요. 첫 번째 질문.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 3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말리: 키워드 3가지라 되게 어렵네요. 처음부터. 음..게으름뱅이, 혼자 놀기, 마지막 하나는 사랑입니다. 진짜 제가 게을러요.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혼자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일단 그 두 개를 얘기를 했고요. 사랑은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제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과 내가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감각도 사랑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팩트를 하고, 이것 저것 하는 다른 활동의 원천은 사랑인 거 같아요.

Q. 오늘 이 인터뷰 자리가 페미니스트이자 저희 민우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혹시 민우회에 회원 가입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말리: 딱히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요. 집에 혼자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에 소속되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후원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그때 민우회가 떠올랐죠. 한국여성민우회도 있지만 내가 있는 이 곳, 광주여성민우회에 후원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장애 여성 공감’이라고 하는 곳도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 날 두 곳을 바로 가입했죠. 제가 좀 생각없이 뭔가 일을 잘 벌리거든요.

Q.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지금 유급 노동을 하지 않는 분이 이렇게 꾸준히 후원을 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한 번 마음 먹어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든 일인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우리 인터뷰 포인트 질문. 자신의 페미니스트 모먼트 어떤 계기나 특별한 장면이 떠오르거든 그거 다 얘기해 주세요.

말리: 제가 이런 인터뷰를 몇 번 해봤는데 항상 얘기했던 건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이하, 강남역 사건)이에요. 그 때가 제가 고3이었어요. 이미 고등학교 때 페미니즘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긴 했어요. 살면서 뭔가 좀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적절한 표현을 못 찾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언어를 주는 말이 페미니즘이구나라는 것에 대해 그 때부터 자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다닌 곳은 대안학교였는데 강남역 사건 이후에 학교에서 벌어졌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대처나 학교 내 문화같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되었어요.

그 때는 페미니즘이 요즘처럼 대중화되기 전이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때라 그냥 이것 저것 주워들으면서 제 언어로 체화하는 시기였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많이 미숙하고 내 태도가 공격적이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하지만 그래도 그 시절의 경험들을 통해 페미니즘이 나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17년도에 제가 대학을 갔는데 마침 그때 팩트가 생겨서 1학년 2학기 때 들어갔는데 팩트에서 학술적인 단어도 배우고 다른

구성원들이랑 이야기 하면서 언어도 정제되고 사고도 넓어지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페미니즘을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문제연구회’라고 하는 동아리에도 들어가서 여러 사회 문제를 페미니즘과 연결 짓고 페미니즘의 렌즈로 바라보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기존의 나의 생각이나 통념들에 대해서도 계속 반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순간, 모먼트가 있다기보다는 계속 배우고 부딪치고, 깨지고 회복되는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페미니즘 모먼트, 페미니스트 모먼트인 거 같아요.

Q.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태현께도 궁금한 게 어떻게 여기 팩트에서 활동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태현의 페미니스트 모먼트도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태현: 대학에 오기 전에는 페미니즘 같은 용어도 몰랐어요. 저는 오히려 안티 페미니스트였어요. 법에 남성과 여성은 다 평등하다고 나오는데 여성이 차별받는 게 있나.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왔죠. 주위 몇 분이 사회문제연구 동아리와 팩트 활동을 같이 했는데 저는 3학년 때 들어갔었어요. 모임이 있다고 하길래 참여했는데 그 동아리 분이 다음에 또 오실 거냐고 물어봤는데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곤 별 생각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모임에서도 처음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여성 구성원들이랑 이야길 나누다보니 저에게 당연했던 것들이 여성분들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겐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여성들에게 그저 불쾌함이나 짜증 같은 정도가 아니라 삶의 위협이었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성별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삶이 다를 수 있구나 이건 뭘까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Q. 그렇죠. 성별에 따라 인식이 다르죠. 많이. 저희가 팩트 활동을 보면 다양한 기획들을 하셨는데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리: 전남대학교 팩트는 17년도부터 시작을 한 단체인데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름은 아니고 페미니즘 이슈에 관심이 많은 한 친구가 혼자서 만들었고 팩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람들도 모이고 단체 정체성을 다시 재정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학술적인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학회라는 이름으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건데요. 17년도 활동을 시작하고 18년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동아리 등록을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동아리 등록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속한 분과의 동아리 회장들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승인이 안 된 거예요. 이유를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냥 거슬렸는데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길 하셔서 시위까지 했는데도 그 때 승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년도에 제가 회장이 됐을 때 다시 승인절차를 밟아서 생긴지 5년 만에 동아리가 되었는데 승인되는 과정까지 너네 남협단체 아니냐고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또 생각나는 게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라는 대학에서 부스를 차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목 자체가 일단 자극적이어서 그런지 제목 신기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또 오셔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게 너무 힘이 되는 거죠. 실은 그거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분들 덕분에 연결되어 있다는 충족감을 느꼈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또 저희가 다른 대학 단체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저희가 이런 모임같은 걸 한다. 이제 윤석열 당선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광주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하는데 힘을 줄 수 있는 편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했는데 진짜 연락이 왔어요. 위로받고, 공감받고. 찼하게 기억에 남아요.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연결감.

그런데 방학 때 다시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고민이 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줌으로만 회의를 하다보니 우리끼리도 많이 만나보지 못했고 밖으로 나가서 학우들이나 대중들을 만나는 사업을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학 때 학술적인 세미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것보다는 지난 번에 했던 부스 사업처럼 대중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방학 때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내일 모임이 있는데 모임 분들과 이야길 나눠볼 예정이에요.

Q. 이게 이어지는 또 질문이기도 한데요. 대학 내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백래시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말리: 에브리타임(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이하, 에타)이요. 요즘 홍보를 하면 보통 에타에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예 없어지다 보니까 모든 정보나 학내 담론들이 다 에타로 몰리면서 어떤 담론의 형성장이 아예 에타가 돼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홍보는 거의 에타로 하는데 저희 게시글에 댓글이 엄청 달리는데 제일 많이 달리는 건 ‘콩깡’ 이런 거예요. ‘무겁다 니네’ ‘똥똥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원색적인 비난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에타 시스템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누를 수 있고 신고건수가 누적되면 삭제가 돼요. 그렇게 저희 글이 삭제가 되고 또 계정이 정지가 되는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팩트 학회원 중에서 계정 정지 안 된 사람들이 없었을 정도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학우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에타라는 플랫폼이

나의 말을 투척하듯 발화하고 끝나는 게 되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담론 형성 자체가 어려워지고 생산적인 논의가 없어지고 말싸움밖에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 대학 내에서 담론 자체를 형성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백래시인 것 같아요.

Q. 그러니깐요. 담론이 형성되고 논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건데..그런 것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네요. 그럼 다른 질문인데요. 20대 청년으로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말리: 서울에 사는 친구랑 좀 다르다고 느낀 게 있다면 기회랑 인프라의 차이예요. 페미니즘으로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으니 고립된 느낌이 가장 큰데요. 페미니즘 뿐만 아니라 다른 걸 할 때도 기회 자체가 단절된 느낌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고 싶다. 콘서트를 가고 싶다. 그럼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서울로 가야하는 거잖아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 차비도 내야하고 시간도 그만큼 투자해야 하고. 그런데 인프라가 많은 서울에서는 티켓 값만 있으면 갈 수도 있는거니.. 저는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뮤지컬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건 나의 세계가 좁아진다는 것과 동일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조롭고 갇힌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Q. 그럼 광주지역에 살면서 조금 더 좋은 점을 혹시 느끼는 건 없나요?

말리: 저는 지역 좋아해요. 단조롭고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과 수도권은 되게 용광로 같다고 느껴요. 모든 것들이 다 섞여있고. 이게 나쁘게 말하면 특색이 없다는 말 같기도 하잖아요. 광주랑 다른 지역들은 그 지역만의 색들이 다 있고 지역들만이 쌓아놓은 고유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들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게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 오면서 광주에 왔는데 광주에 와서 5.18이라든가 광주만의 문화 같은 걸 향유해온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바로 전 질문에 지역의 단조로움, 단절이라고 했던 건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가진 서울 중심성의 문제인 것 같네요.

계속 어떤 문제나 일이나 사건이나 담론이 서울로 몰리기 때문에 서울의 일은 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지만 광주에 있는 일은 오직 광주의 일로만 취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지역의 소외감이 느껴지죠. 서울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을 거치고 나서 생각하게 되는 모든 것들. 그런 서울 중심성에 대한 생각, 시각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팩트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많이 얘기 나오는 서울 중심성 자체에 대한.

Q.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페미니즘 운동 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말리: 첫 질문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기적이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저만의 즐거움이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 혼자서, 단독자로서 행복하고 잘 살 수는 없다는 생각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내 주위가 어렵고 힘든데 나만 거기서 잘 살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깐요.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을 왜 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행복을 위해서 합니다. 저의 평온한 삶과 평안한 인생을 위하여.

태현: 페미니즘. 어원을 살려서 번역하면 여성주의, 여성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페미니즘 운동이 단지 여성만의 운동. 여성만의 실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배우고 경험한 페미니즘은 확장성이 큰 해석의 틀이어서 청년, 세대 담론이라든가 서울과 비서울, 여성과 남성, 장애인 비장애인 등. 위치성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을 다르게 해석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치만 전 “나는 페미니스트야”라고 할 때 신념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듯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 이건 이상하네, 이걸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Q. 맞아요. 페미니즘이 결국은 ‘나’를 알고, ‘나’를 해석하게 해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는 학문이자 실천인 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을까요?

말리: 인터뷰 중에 지역과 서울에 대한 이야길 하면서 저 스스로도 생각하게 된 게 많은 거 같아요. 왜 나는 지역에서의 경험을 고립과 단절로 답했을까. 그래서 서울중심성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는 한국 사회에 너무 만연하고도 당연하게 깔려있는 어떤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인식하는 게 지역에 살면서도 어렵고요. 그럼 네가 서울 가라. 결국 너도 서울 못 가서 내려온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구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열등감으로서 공유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서울에 갈 순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에서 그런 단절과 고립없이 확장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했으면 하고 그런 것들이 중심 담론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네가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중심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은 결국 그 밀려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저는 주변과 중심이 해체되는 걸 꿈꿔요.

그리고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 코로나 이후에 더욱 더 단절된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너’와 ‘내’가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서로가 티키타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연결감’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타인에게 묻는 사랑!

윤희경('하랑' 팀장)

10명의 인터뷰를 정할 때 우리와는 다른 현장 활동가의 삶이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분야의 활동가를 초대할까 고민하다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면 어떨까 의견이
모아졌다. 적어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하지만 성매매와 관련한 한국사회의 통념은 성폭력보다 더
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성매매 여성들이 왜 피해자야? 라는
논쟁도 존재하는 걸 보면. 그들의 기쁨과 슬픔이 궁금해서
'하랑'의 윤희경 팀장(이하, 희경)을 초대해 이야기를 청했다.

*처음 단체에 들어왔을 때 '활동가'라고 지칭하는 게 낯설었다.
상담원이면 상담원이지 왜 활동가라고 본인들을 부르는 걸까.
여전히 활동가의 정의를 쉽사리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활동가'다.

Q. 회경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세요
있을까요?

회경: 이 질문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제가 다를 거 같아서 전 주변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저하면 뭐가 떠올라요?” 한 선생님이 저를 색깔로 표현하셨는데 “흰색”이래요. 한국인들한테 흰색은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해서 기쁜 마음에 “좋아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집은 하예요”

저로서는 조금 황당한 대답이었어요. 나에 대해 질문했는데 집이 하얗다니... 물론 우리 집 자체가 하얗기는 해요. 전체가 다 하얀 분위기에 물건도 많지 않고, 잘 정리된 편이죠. 선생님 눈엔 더욱 하얗게 보였을 것 같긴 해요. 이 말을 듣고 집을 한번 둘러보니,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뭘 하나 사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하고...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이고, 깨끗하고 하얗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동료의 답을 듣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꼼꼼하고 정확히 정리된 사람으로 보여서 접근하기 조금 힘든 사람이지 않냐는 생각도 하게 되고,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데, 새삼스럽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우리 신랑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도 “흰색”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흰색. 근데 의미는 다르더라고요.

신랑에게 “당신도 내가 정리 잘하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야?” 물어봤더니 “순수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순수하고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보다 열정이 떨어졌고 순수하지도 않고, 현실에 타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완전 100% 내 편인 사람이니까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신랑의 그 말이 ‘아직도 나한테 순수함과 열정이 남아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 질문이 쉬우면서도 어려웠어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개인적인, 개인을 향한 질문이었기도 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다가 특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저를 더 드러내야 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하는 것이 많이 어색해요. 주변인 기회를 쓰기는 했지만, 저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Q. 저희가 많은 분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 본인이 생각하는 나를 이야기해주셨는데 이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저희가 다른 영역 활동가들의 삶이 궁금해서 모셨는데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랑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희경: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하랑’>(이하, 하랑)이에요.

‘하랑’은 성착취 범죄 피해를 본 아동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하랑’은 2021년도에 처음 개소했어요. 2020년에

있었던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현황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N번방 사건은 대다수 피해자가 청소년들로 그 피해 규모가 매우 컸어요. 초등학교들까지 있었죠. 피해자의 나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성착취물을 상업화하여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걸 처벌하는 법은 약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다는 사실이 그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죠.

아이러니하게도 N번방 사건을 통해 2020년 5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성착취 범죄 대상이 된 아동을 ‘피해아동·청소년’에 보호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그 법을 근거로 전국 시도별로 성매매피해아동지원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기관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논의되었지만 결국 3년짜리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현재 17개 시도에서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어 있어요. 광주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맡게 된 것이고요.

‘하랑’은 피해자의 조기발견 및 긴급구조,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지지체계 마련, 치유회복 프로그램, 교육, 자립자활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활동과 온·오프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성매매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원기관 안내 및 성범죄 피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이 목표예요.

작년부터 꾸준히 광주 전남권 지역단체와 기관에 하랑의 개소를 알리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지역 내 청소년 보호기관의 연계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3년

동안 꾸준히 하랑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 같아요. 큰 사건으로 인해 법이 개정되고 정부에서 17개의 지역에 개소를 진행한 상황이지만, 이후의 정부 대처는 미흡해요. 급한 불은 컸다는 심정일까요? 아직도 일반 시민들의 대부분은 센터의 유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관공서, 경찰 또한 마찬가지고요. 가장 협조가 잘 돼야 하고, 법 개정에 민감해야 하는 경찰이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가장 힘들어요. 업무지침 상 경찰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만나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는 트라이앵글(삼각) 구조인데, 그 체계 자체를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며 홍보한 우리로서는 가장 기운 빠지는 일인 것 같아요.

사건이 터진 이후 급하게 법이 개정되고, 센터가 개소하다 보니 운영지침부터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요즘은 여가부 존속 문제와 더불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고요. 센터화되지 못한 사업이 갖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눈이 보이게 산재하여 있어 답답해요. 사건이 터지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나 만들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위는 그만 멈추고, 누가 봐도 필요한 이 사업이 체계를 잡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Q. 피해자들을 만나는 일은 정서적으로도 소진이 많이 되는 일 같은데요. 혹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나만의 비결이 있으실까요?

희경: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해요. 원래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일부러 챙겨서 하려고 하니 재미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하면 수영장 가는 건 거의 일상이예요. 수영장 가면 정말 천태만상. 세상의 모든 걸 경험하게 돼요.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연대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끈끈함이 있어요. 뭐라도 나눠주고 뭐 먹는 것도 나눠주고. 근데 또 싸움도 엄청 많이 해요. (다들 웃음) 많이 피곤하지 않은 이상은 수영을 하러 가고, 볼링 동호회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볼링을 쳐요. 자주는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산에도 가요. 남편이 산을 좋아해서 그냥 따라가듯 다니다 보니 여름만 빼면 가을이나 이런 계절엔 가기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운동으로 일상을 환기한다고 하면, 팀원들과는 일하는 사이사이에 커피 마시러 간다거나, 나가서 점심을 먹는다가나 해요. 되도록 일 얘기 말고 그냥 딴 얘기하고 와요. 저는 그게 환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하

그런데 팀원 중에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커피 마시려고 하면 일을 밀쳐줘야 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팀장으로서 그 순간을 파악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일을 미뤄놓고 나를 따라 나와도 될 상황인지 아니면, 팀장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요즘은 선생님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자 말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모여서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더 어렵고요. 오히려 집에 가서 쉬고

싶을 수 있는데 내가 시간을 뺏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이게 팀장의 고민입니다.

Q. 맞아요. 뭔가 배려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에게는 배려가 아닐 수도 있으니. 팀장의 역할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저희가 처음 인터뷰 요청했을 때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꼭 페미니스트가 아니래도 내가 여성이라고 하는 자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희경: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럴 만한 계기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빠는 4남매 중에 첫째, 엄마는 6남매 중에 첫째, 그 사이에서 제가 첫째로 태어났으니 제가 집안에 제일 첫째였어요. 그 시절이면 첫째 아들에게 아들 손주를 바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엄마한테 아들 낳아야 한다 이런 구박은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들자식 키워봤더니 별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셨을까요? 할머니는 슬하에 아들 3, 딸1을 두셨거든요. 고모랑 할머니랑 많이 투닥거리긴 하셨지만, 그래도 고모가 할머니께 잘하셨던 것은 기억나요. 집에서는 첫째로서 부담은 있었지만, 남자가 아니어서 차별을 받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는 좀 달랐어요. 어렸을 때 항상 맨 뒤에 앉아 있을 정도로 키가 컸어요. 지금 같으면 키 크고 그러면 다들 애들한테 너 진짜 잘 컸다. 하면서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여자애가 너무 크다고 야단을 맞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데다가

눈이 안 좋아서 앞에 앉으면 “너 머리 때문에 안 보여”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말이 상처가 되니까 계속 어깨를 숙이고 앉아 있었던 것이 기억나요. 아직도 어깨가 짝 안 펴져요. 하하. 남자라면 커도 야단 안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남자라면 당당하게 눈이 안 좋아서 앞에 앉는 거라고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여자답지 못하게 큰 내가 싫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작고 아담한 여자분들이 조금 부러워요.^^

매 순간 제가 여자라는 걸 생각한 것 같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인데,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서 카사노바로 살고 싶어요. 하하

저는 원래 의류학 전공이었어요. 대부분 저희 친구들은 그 분야에서 일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 맞더라고요. 손재주가 좋은 편이어서 당연히 전공과 맞을 줄 알았는데 뭔가 창작해내는 것. 무에서 유를 창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옷감을 줄일 수 있는지, 옷감 한 장으로 몇 벌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계산하는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을 수 있는데... 여튼 의류학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그대로 있을 수 만은 없어서 의류학을 전공하면서 가정과 정교사 자격증을 땀어요.

무사히 졸업은 했지만 당장 직장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암울한 IMF 시기. 실업자가 발에 차이는 시절이었어요. 임용 고시 준비하면서 기간제 교사로 일을 했죠. 그런데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는 게 진짜 녹록지 않더라고요. 정교사하고 기간제 교사하고

차별이 엄청 심했거든요. 학생들도 알아요. 저 사람 정교사 아니고 비정규직이라는 걸. 30대 초반까지 기간제 교사로 여러 학교를 돌아다녔어요. 그 시간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다는 말 밖에 안 나와요. 정규직 선생님들의 연봉들을 다 채워주기가 힘들어서 정규직을 뽑는 대신 기간제 채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어떤 곳은 지난번 학교의 연봉을 인정해주지 않아 1호봉으로 다시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1년에 임용 고시 선발 인원은 몇 명 되지 않은 비인기 과목의 기간제교사…. 지금 생각해도 버텨낸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기간제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부 졸업장만 3개가 되었네요. 엄청 치열하게 살았죠. 직장을 옮길 때마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어 자격증을 따고, 공부했어요. 되도록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부모님 도움을 받아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더 힘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니깐 저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보다 자격증도 적은데 남자라는 이유로 기본 연봉이 차이나는 너무 다른 삶을 산 걸 보았어요. 아니 그전에도 보았지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가왔어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격증 따는 걸 멈춘 건.

‘여자로서 혼자 살아남고 살아가야 하니깐 어느 그곳에서는 일할 수 있게끔 준비해놔야 한다. 다 너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입증해야만 제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저는 그 누구에게도 상의해 본 적도 없었고, 도움을 요청해보지도 못했어요. 요즘 저는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들에게 대답해요. 고군분투하면서 살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자신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에요. 조금 쉬어도 된다고, 잘살고 있다고.

이 인터뷰에 참여하면서 제가 페미니스트가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페미니즘은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여성해방운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한다.”

라고 적혀있었어요. 나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니깐 난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뉴스에 나올 정도의 큰 차별은 아니더라도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꽤 제게도 있었고, 그 차별들을 제가 의심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익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싶기도 했고요. 진짜 어젯밤에 이 질문지를 놓고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

Q 저희 질문을 너무 깊이 고민해주신 것 같아 저희가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 너무 많은 차별 경험들이 희경에게 남아 있어서 희경이
단호하게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담 혹시 ‘하랑’에서 기억에 남는 지원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희경: 올해는 사업 흐름 자체를 잡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되도록 상담을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저는 사업의
흐름을 잡는 일을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다 했어요. 기억에
남는 친구라고 하면 저의 내담자가 제일 기억에 남죠. 그분께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했고, 외부 전문가들을
연계해서 심리 상담도 받도록 했는데도,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됐어요. 며칠 전에 그 친구 생일이 지났어요. 저희가 만
19세까지 지원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종결 보고서를 쓰고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
“이제 나이가 다 돼서 더 지원을 받고 싶어도 이곳에서는 받을
수 없으니, 지원이 필요하시면 성인 상담소 가셔야 합니다.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성인 상담소 지원받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전하면서 씩씩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지는 모르겠네요.

작년 말부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나의 내담자들은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제가 그들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제가 하는 이 일 자체가
변화가 더디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 활동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페미니스트도 아닌 그저 월급쟁이에 불과한 나의 책임감이 자꾸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해요. 그런 마음에 인터뷰를 거절했는데 어찌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해야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Q. 아니에요. 오히려 솔직한 마음들을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완전히 신입 활동가가 아닌 희경을 모신 것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일을 사랑하지만, 또 미워하게 되는 시기도 분명 있는 거니깐요.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들이 진짜 희경이 이 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고 저희가 하는 고민과도 너무 비슷해서 놀라기도 했어요. 우리 지속할 수 있는 활동들 계속 이어가요.

“사-리-썩는 귀, 뜯는
눈으로 뜯어” 뜯는 사-리-썩,
이소아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단체가 광주지역에서 처음 개소했을 때 모두 이 단체에 대한 낯섬을 느꼈다. 공익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며, 다른 법무법인에서 하는 일들과는 무엇이 다를까 하는 의문들이었을게다. 그 ‘동행’의 불박이 상근변호사이자 활동가인 이소아 변호사는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다. 함께 사건을 지원할 때 그는 의뢰인을 대변하는 싸움꾼이었고, 변론낭독회, 작품 전시회,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책 저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일들을 기획하는 기획자였다.

법의 언어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 이소아를 만나고자 ‘동행’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청했다.

Q.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 3가지가 있으실까요?

소아: 저의 첫 번째는 “자유로운” 하지만 요즘은 좀 “지친”, 그리고 “돌봄”. 저는 돌보고 돌보는 사람이거든요. 형용사로 표현하면 그렇고요. 명사로 한다면 변호사, 엄마, 딸. 그 세 가지가 저의 지금 제겐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키워드인 것 같아요.

Q. 지금 명사로 이야기하신 건 하고 있는 역할이시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한테 나를 소개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소아: 저는 항상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은. 어릴 때부터 ‘자유로움’은 저의 화두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었거든요. 특히 아빠로부터. 어떻게든 부모님을 떠나려면 학교를 서울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공부를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지역으로 가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 사람은 죽는데 그 순간에 자유롭게 떠나고 싶어요. 아무 두려움 없이. 아마도 너무도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강하게 갖게 된 것도 같아요.

Q. 자유로운 사람 이소아. 자유롭고 싶은 사람 이소아로 축약할 수 있을거 같네요. 인간 이소아만큼이나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있으실 거 같은데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변호사를 꿈꾸며 이루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지 궁금하구요.

소아: 전 제가 원해서 법대에 간 것도, 사법고시를 본 것도 아니었어요. 부모님한테 엄청 순종하는 성향이고 특히 엄마의 말에 엄청난 영향을 받으며 자랐어요. 수능 본 후에 저는 오직 부모를 떠나 대학을 서울로 갈 목표만 있었지 어떤 과를 가야할지는 정확하게 정해 놓진 않았는데 그래도 가야 한다면 영어교육과나 영문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좋아해서. 그걸 해볼까 막연하게 생각중이었는데 엄마랑 작은 이모 두 분이 제게 법대를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정확히 없는 상황에 두 분이 혹 치고 들어온거죠. 그래도 제가 가보고 싶은 영어교육과 하나, 법대에 하나씩 원서를 냈는데 영어교육과에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법대생이 되었어요.

법대엔 들어갔지만 감히 제가 사법고시를 본다는 건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사법고시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음의 부담은 되고 하기는 싫고. 그런 채로 대학교 4년을 보냈으니 제가 어땠겠어요. 거기다 하필 대학에 입학하고 IMF가 왔어요. 다른 애들은 스펙도 쌓고 다들 열심히 사는데 저는 우울한 상태로 아무 것도 안 했죠. 아무 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의 취업은 더 자신 없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나중에 그만둔 다음 엄마 탓이라고 해야지. 이게 다 엄마 탓이라고(핑계 대야지). 그렇게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때 저 스스로 공부 한 것도 있지만 친구들이 저를 끌고 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최대한 돈을 덜 쓰려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하는데 고시 기숙사에 머물려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통과해야하니

꾸역 꾸역 그 점수 통과하려고 공부했어요. 스물 네 다섯 살이나 먹었으면서도 엄마 탓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도 컸구요. 그런 상황들과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지금 상황에서 일단 승부를 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법고시에 떨어지길 반복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연수원은... 연수원생 대부분이 모두 다 판, 검사 되는 걸 바라면서 공부해요. 엄마는 제가 판사가 되기를 바랐어요. 엄마 기도제목 1번이 이소아가 대법관되게 해달라고 하실 정도로 바람이 크셨어요. 연수원 공부는 판, 검사를 키우는 공부인데 공부를 할 수록 판, 검사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알던 선배들중에 NGO 단체에 가 있는 분 보면서 뭔가 의미있는 일을 변호사가 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렵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Q. 저희는 소아님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무척 애정하는 듯 보여서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 가지셨을꺼라고 생각했지 이런 사연이 있을꺼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여러 결정들 사이에 고민이 많으셨을꺼 같아요. 고민을 같이 나눴거나 하신 분이 계세요?

소아: 인생의 고민을 쭉 같이 한 사람이라. 저희 쌍둥이 언니랑 항상 같이 고민을 나누고요. 제가 카톨릭 신자라 함께 하는 기도 모임이 있고, 대학교 때 만난 카톨릭쪽 모임의 선배들이 있어요. 대학 때 널브러져 있으면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던 선배들이요. (다들 웃음) 그런 모임들이 제게
 모임단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성매매 피해자
 지원하던 ‘다시함께 센터’에서 일했었는데요 그 때 같이
 일했던 활동가들. 그 활동가들이랑 아직도 연락해요. 그리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선후배 변호사님들이죠.
 선배 변호사님들한테는 계속 물어봐요. 동행 만들 때도 기획안
 만들어서 어떻게 같은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는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나 광주는
 동행 같은 단체 안된다는 분위기가 컸어요. 선배 여성 변호사들
 붙잡고는 많이 울기도 했어요. 다 반대할 때도 여성 변호사님
 중 한 분은 하고 싶은대로 해보라며 지지해주셨는데 그게 그 때
 그렇게 힘이 되더라구요. 지금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좋죠.

Q. 지금 몸 담고 계시는 ‘공익활동가와 함께 하는 동행’(이하, 동행)
 관련해서 물어볼건데요. 동행, 이 이름에 어떤 의미를 두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소아: 한자로는 같을 ‘동(한자)’에 갈 ‘행(한자)’자가 결합된
 동행이구요. 로고는 업체에 맡기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던 이미지를
 스케치북에 직접 그려서 보내줬어요. 길이 있고 그 길 위를 사람
 두 명이 걷는 이미지로 보였으면 했는데 그걸 이미지화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로고에 보라색과 초록색이 들어간 이유는 두 색깔
 모두 원색이 아니라 색깔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색이잖아요. 함께
 섞여든다는 의미를 주고 싶었어요.

‘동행’이란 이름은 저희 언니가 지어줬어요. 이름을 고민하고 있는데 언니가 “‘동행’으로 해. 같이 가는거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공감’ 같은 건 잘 못하는 성격인데 같이 가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동행’이란 이름으로 짓게 됐고요. 이 이름과 함께 어떤 표어 같은 것도 만들고 싶었어요. 동행은 이런 곳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대학교 모임 선배언니(작가이자 농촌사회학자)에게 “저희가 만들고 싶은 곳이 이런 곳이다. 이걸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선배가 다른 선배랑 마침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야길 나눠서 그 자리에서 ‘동행’의 표어가 생겼죠. 지금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는데요. “지역에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의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전달한다” 원래 거기에 몇 줄 더 있어요. “바라보는 귀, 듣는 눈으로 들어” 이 표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이 표어처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듣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이 문구를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소개할 때는 그 문구를 이야기하진 않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쉬워서 홈페이지에 넣었어요.

동행의 로고나 표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저희 이름 보면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일반 시민이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인권변호사라고 하면 너무 지사나 투사같은 이미지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살아갈 용기는 없거든요. 저 희생하면서까지. 제가 동행을 통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법조계의 생태계를 아는 공익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 시민인데 ‘인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것도 같고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실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래서 ‘인권변호사’가 아닌 ‘공익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말 자체를 빼버릴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공익 변호사가 전업 상근자로 일하는 모델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동행’에서 함께 한 변호사들이 길게 일해도 3년 일하고 다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상근 형식이 적합한가. 아예 반상근 형태로 활동하면서 다른 업무들도 보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죠. 그런데 그럼 상근자 입장에서는 업무적으로 소통이나 협업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변호사가 상근으로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단체에서 활동하던 실력있는 활동가를 뽑아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까지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어요.

‘동행’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최근 고민까지 이야기하는 게 좀 지나친가 싶긴 하지만 제 고민이 최근에 ‘동행’의 정체성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라 그런 것 같아요. 실은 운영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게 맞는지도 다시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률지원을 최우선으로 두면 당연히 지원하는 사건 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다른 법률사무소와 동행이 다를 바가 없지않나 싶은거죠. 그럼 비영리 단체로 구지 운영할 필요도 없는 거 같구요. 물론 지원하는 사건 수 만큼 각 각 사건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이 동행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묻게 되는거죠.

저는 오히려 동행이 현재까지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면 그건 지역의 훌륭한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해서 해온 일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희롱 피해자 해고 사건도 민우회에서 길게 싸워온 덕분에 피해자가 복직된 거잖아요.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부분에서 동행은 특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적인 지원 사업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자체가 맞을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 고민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몇 개월 내에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켜보면서 있으면 전환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행은 제가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혼자 할 수는 없겠죠. 처음 동행을 운영할 때 운영위원분들도 그렇고 회원분들도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 연 초에 하는 정기 총회를 앞둔 운영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산안을 세울 때 제가 항상 수입을 그 전 해의 2배로 잡았어요. 무조건 늘리겠다. 그러면 모두가 걱정을 하시는거죠. 하지만 그게 3년까지는 정말 됐어요. 2배씩 회원이 늘고, 후원이 늘고..그런데 3년 이후부터는 정체기더라구요. 그래도 그 3년을 보고는 운영위원들이 그래도 이소아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며 믿어주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위원들의 3분의 2가 변호사인 상황에서 동행이 법률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동행의 특화성이 뭐가 있냐 물으실꺼예요.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동행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저만큼 고민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살짝 살짝

언급을 해야죠. 내년도에는 TF팀을 아예 꾸려보자고 할 참이에요. 말이 TF지. 그냥 밥 사주시라고 하면서 구상을 전해볼 생각하고 있어요.

Q. 역시 다 계획이 있으셨어(다들 웃음) 동행의 전망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시네요. 그럼 동행 활동을 하면서든 변호사로서든, 이게 분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됐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또 그만큼 힘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소아: 변호사로서 힘들 때는 당연히 질 때죠. 소송에서 패소할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승률이 낮진 않답니다.(다들 웃음) 패소했을 때 힘든 것도 힘든거지만 진짜 힘든 건 소송에서 이겨도 근본적인 게 안 바뀔 때 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동행 유튜브에 황신애님 사건(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사자)관련해서도 올렸었는데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먼저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인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장기요양 서비스랑 활동 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이 것과 관련해 헌법소송을 넣었고 3년이 넘게 싸워서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는 데만도 2년이 걸렸어요. 법의 개정 내용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아직도 발생이 되는거죠. 엇그저께도 황신애님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남양주에서 행정소송을 해야 됐어요. 이런 그런 경우가 힘들죠. 열심히 싸웠는데도 구조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을 때.

동시에 어떨 때 힘이 생기고 보람이 있냐고 하면 저는 이 일 자체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계속 공부하는 해야 되지만 잘하니까 칭찬받고 그래서 일 자체는 신나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많이 배우냐고 묻는다면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던 황신애님 같은 당사자를 볼 때. 민우회랑 같이 지원했고 패소하긴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진술하는 걸 볼 때. 그 재판이 새벽까지 진행됐는데 끝까지 남아서 재판을 방청했던 여성단체 활동가들. 2015년 여수 유홍주점 여성 사망 사건 때 기자회견을 하는데 전국에서 모인 활동가들을 보았을 때예요. 그럴 때 많이 배우죠. 여수 사건 지원할 때 변호사들은 30분 기자회견하는데 사람들이 뭐 얼마나 오겠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30분 기자회견하려고, 그저 뒤에 병풍처럼 서 있다 가는데도 전국에서 순천법원으로 모이는 걸 보면서 놀랐죠. 저희는 진짜 그런 싸움에 새끼 손가락만큼만 얻고 있거든요.

Q. 역으로 저희가 민변 공익소송지원단에 법률구조 신청을 했을 때 오케이 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시죠? 우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민변이 우리 뒤에 있다. 동행이 뒤에 있다. 그게 활동가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일의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동행의 대표, 그리고 엄마, 딸로서의 역할에서 오는 소진들도 상당할 꺼 같아요. 그런데도 소아님의 sns 보면 악기도 배우시고 발레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혹시 그런 것들이 소아님의 힘의 원천일까요?

소아: 뭐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외로운 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거죠. 저는 술을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공허한 대화를 하는 시간들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삶만으로도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공허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엄마도 괜찮으시고 이렇게 집안에서도 아이를 케어할 일이 없다고 하면 그런 대화를 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주말에 엄마 모시고 여행도 못 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저를 충전은 해야 하니 뭘 할까 생각하다 깨달았죠. 나이 들수록 근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그래서 발레를 시작하게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 한숨을 쉬고 싶은거예요. 그 한숨이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클라리넷을 배웠던 거구요. 결국은 살려고 찾은 것들 같아요.

저는 이제 재미없는 건 안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도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으면 안 하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이거 하면 재밌다. 이거 하면 좋구나. 이런 걸 찾을 수 없었어요. 운동도 대학교 한 3학년 가서야 배울 수 있었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어. 넌 뭘 할 때 재밌고 좋으냐고..전, 저를 정말 모른 채 살았었던 것 같아요.

Q. 이제 재미없으면 안 한다고 하시면서도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으신..^^ 그런데 변호사님이 몸을 쓰는 건 상상이 잘 안되긴 하네요. 그러면 여성 변호사로서 경험했던 것 중에 인상적인 게 있는지요?

소아: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는 화장도 하고 정장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변했죠. 제가 광주에 내려올 때가 2013년이었으니 벌써 9년 전이네요. 현재 광주 전체 변호사 숫자가 500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 여성 변호사는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 당시에는 전체 변호사가 300명정도 이내였다고 하면 여성변호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어요. 한 2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송년회 하면 거의 참여하는 편이었죠. 지금은 8~90명 이렇게 되거든요.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많아졌죠. 그런데 여성 변호사 안에서도 딱 단발머리에 치마 정장, 구두 같은 스테레오 타입이 있잖아요. 제가 스테레오 타입었는데 지나가시는 모 여성 부장판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이소아 변호사님은 옷은 잘 입는 것 같은데 머리는 어떻게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다 빠졌다가 다시 나는 거여서 파마를 해도 안 되는 머리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판사님께는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2019년정도에 커트 머리로 자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정에선 포지션이 있는 거 같아요. 피해자 국선 변호사일 때와 피고인의 변호인이었을 때의 포지션이 다른 것 같아요. 피해자 변호사로서 들어가면 전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는 거 같아요. 피해자 변호사는 의견서나 이런 걸로 전달하면 되고 법리적인 입증은 검사 몫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피고인의 변호인이다. 그러면 뭔가 격식을 갖춰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성 변호사여서 함부로 보지 않게 하려고 목소리도 더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신입 변호사 한 3, 4년 차까지만 해도 재판부에서 그런 걸 느끼기보다도 오히려 상대방 측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사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결혼 이후 여성 남편이라고 하면 진짜 함부로 하고 저한테 샷대질 한다거나 그런 적도 있었으니깐요.

Q. 그래도 조금씩 법정의 분위기도 바뀌고 여성변호사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변호사님은 보면 광주여성민우회 연극모임 '시나페'랑도 공동으로 작업하셨었잖아요. 그런 콜라보를 계속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소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감독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연극 하고 싶다고 했더니 감독님이 엄격한 표정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간을 빼실 각오가 있으면 그때 들어오시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땐 포기했죠.

그런 동행의 기획 사업이 크게 세 번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변론 낭독회. 그 때는 연극모임 공연도 초청하고 지역 활동가들이 직접 같이 했던 재판의 의견서나 판결문을 낭독하는 걸 했었어요. 그 다음은 민변 광주 전남지회 20주년 행사를 하면서인데 그 때는 민변의 회원들이 주인공으로 두 달간 연습을 해서 올렸었어요. 엄청나게 호응을 얻었죠. 그 때도 동행에서 저랑 다른 변호사가 투입되서 준비했었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시나페랑 함께 한 전시인데 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의미 있고 좋았어요. 처음 시나페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던 건 “저희가 서울 인권활동가들이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작업한 작품으로 전시회를 하는데 이 전시회를 만든 분들께 광주의 활동가들이 화답하는 의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였어요. 극본을 새로 쓰실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안 했어요. 원래 하시던 것 중에서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새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지나고 나니 내 욕심이었구나 생각했어요. 결과물은 좋았고 과정도 너무 좋았지만 그 과정이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진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작업은 아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저는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 어떤 지향으로 신나게 일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할 예정이에요.

Q. 내년에 동행에서 벌일 일들이 또 기대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소아: 실은 올해 내내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함께 하던 변호사들이 나가고, 새로 변호사를 모집해도 동행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고.. 인터뷰 때도 이야기했지만 동행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때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하는 시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앞으로도 동행과 함께해주세요!!

총명_ㅇ아_ㅇ씨, 챔_ㅇ기_ㅇ름 언_ㅇ니,
장_ㅇ명_ㅇ아...
경_ㅇ계_ㅇ에 서_ㅇ겨 걸_ㅇ다

장명아(찬찬히 방앗간)

조금은 촌스럽지만 정겹고 익숙한 고소한 일상을 꿈꿔요 '먹고
여행하고 사랑하라'

장명아 대표가 운영하는 '찬찬히 방앗간' 블로그를 검색하면
소개글에 써 있는 글귀다. 그는 자신을 챔기름 언니라고
부르면서 저 공간에 자신의 방앗간을, 본인이 만든 먹거리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여행기를 담아 놓았다.

그는 제법 광주에서 창업과 관련한 강의에 초대받기도
하고, 선물하기 좋은 들기름 집의 주인장으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기도 하다. 우리는 '찬찬히 방앗간'도 궁금했지만
챔기름 언니 '장명아'라는 사람의 허스토리도 궁금해졌다.
그리고 지역에서 여성이 자영업할 때의 기쁨과 슬픔도
궁금했다.

인터뷰는 그의 방앗간 한 귀퉁이에서 진행되었다.

Q. 이렇게 방앗간에 와 보게 되네요. 저희가 간단히 질문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저희 첫 번째 공통 질문.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명아: 이 질문이 제일 어렵던데요. 음..방앗간 챔기름 언니. 그리고 제가 탈춤 추던 시절 불리던 ‘총명아씨’

Q. 챔기름 언니도 너무 좋고 총명아씨도 너무 좋은데요. 둘 다 좋아하는 정체성이니까 이야기하신거죠.

명아: 그렇죠. 총명아씨로 한 20년을 살았으니까요. 18살에 취미로부터 시작했고 일로 한 게 10년 정도를 했어요. 예전에 활동했던거고 정말 새로운 세계로 왔지요. 업종 자체도 사실 너무 새로웠고 예술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자본, 창업으로 오면서 생각에 틀이 많이 바뀌었죠.

Q. 저희가 어쨌든 간에 명아 대표님을 뵈 게 작년에 저희 후원 행사하면서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찬찬히 방앗간을 떼어놓고 대표님을 생각 못하겠더라고요. 이 찬찬히 방앗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천천히도 아니야 뭔가 찬찬히야. 그리고 방앗간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와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명아: 제가 창업을 준비한 게 큰 애가 7살, 작은 애가 5살 때였는데 그 때는 공연 활동을 했었는데 일의 업무가 주로 주말이거나

방과 후거나 그랬어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가 8살이 되면 이 일을 아이들 양육하면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어요. 내 시간을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창업을 일단은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비슷한 또래 좀 더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저한테는 10시 4시 근무가 너무 필요한데 그런 일자리가 없는 거죠. 또래 여성들이 많은 일자리 교육을 받아도 실제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건 양육의 부담을 나누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양육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두가지를 다 선택하기가 사실은 쉽잖아서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지고 경력 단절도 생겨나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없으면 좀 만들자 했어요.

그게 창업의 처음. 시작이었죠.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식으로 근무하면서 250만원 넘게 받는 일자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러면 10시부터 4시까지 돈을 많이 받지 않아도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들을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좀 더 필요한가 그랬을 때 후자로 해보자고 그 때 같이 하기로 한 친구들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진짜 돈을 잘 벌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더 가져가지 말고 한 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죠. 제가 다른 곳 인터뷰도 자주 하고 있었는데..너무 떨리네요.

이런저런 과정들 속에서 저한테는 되게 필요한 일자리였어요. 저희 친정이 방앗간을 하고 계셔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템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큰 애가 아토피가 되게 심했어서 먹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재료들을 구입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사실 양념류까지 많이 신경을 쓰기가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참기름이라는 것 자체가 제조 과정 자체에서 위험성이 있는 고온에서 볶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제품을 한번 생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됐고 기존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산하고 제조 방식에서 좀 차이를 두자라는 걸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제조업에서 10시 출근 4시 퇴근하는 주 25시간 근무를 한다는 건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거죠. 사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아무리 서로 좋게 나눠 가진다고 해도 이게 정말 가능한 모델일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도 천천히 가보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이름이 찬찬히 방앗간이에요.

처음엔 세 명이 시작을 했었고 그 때 한 명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멀리 이사를 가면서 그 친구는 그만두게 됐고 한 친구는 지금도 계속 같이 하고 있고 지금은 저까지 네 명이고 청년 인턴 1명 이렇게 5명이 같이 하고 있어요.

처음 창업할 때 그런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아줌마들이 모여서 창업을 하는데 이 창업모델로 돈을 벌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시선이 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뭔가 치열해 보이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거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밖에서 봐주는 것만큼 저희 매출이 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수익을 내는 곳이죠. 왜냐하면 초반에 투자받은 것도 있었고 지원 사업들을 받아서 만들어 왔던 것도 있지만 영업이익은 내는 곳이 되자고 했고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곳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부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천천히 성장했지만 매년 두 배씩 성장했어요. 총 매출로 말하면 이것 밖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재작년보다 작년 두 배 했고 작년보다 올해 두 배 했고 이제 올해도 상반기 결과로 봤을 때 두 배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찬찬히 방앗간’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방앗간은 사실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주식회사 회사 이름은 씨드밀이고. 사실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수출할 거야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 회사 이름은 외국에서도 먹히는 시장에 접근했던 거는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 접근을 했죠. 찬찬히 방앗간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우리 가치관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이름이었고 그런 것도 많이 사실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이 제조업이 하루에 5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기계를 세팅하고 세척하는 것만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루 안에 작업이 끝나지 않을 때도 있어서 그러면 탄력근무제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간 친구들은 아침에 좀 더 빨리 올 수 있고 또 이른 퇴근이 더 나오니까 9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고 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친구들은 10시에 출근해서 4시까지 퇴근하면서 되게 한 시간 단위로 이 작업량을 끊어서 세팅을 했어요. 하고 넘겨줄 수 있게 세팅을 해서 1시간이라도 가능한 효율적인 방법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규모가 커져야 되고 규모를 키우려면 또 큰 자본력이 한 번은 투입이 되어야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안에 좀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더 공부를 하자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해볼 수 있는 거는 브랜딩 기획이다. 우리가 원하고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을 oem 생산하면서 이것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라고 고민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내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니’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고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해볼 생각이고 또 내년에 유아식 브랜드 ‘야물야물’이라고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Q. ‘야물야물’ 이라니. 너무 귀여운데요. 이름부터 너무 좋아요. 저희가 오기 전에 블로그도 들어가보고 했는데 기획력이 좋으신거 같아요.

명아: 그래서 야물이를 만들 거예요. 캐릭터. 콘테스트도 하고 그런 즐거운 상상들을 계속 해보는 거죠. 저는 공연을 했었던 사람이고 공연과 문화예술 교육 기획을 원래 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상품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제품 안에 어떻게 녹일 것이며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싶은 거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 가지고

본인의 문화가 어떻게 좀 변화되길 바라는지 또 이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마 초반에 사람들이 저희가 관심을 가져준 게 식품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접근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Q.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마리몬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떠올랐어요. 일본군 위안부 선생님들이 그린 그림을 모티브로 가방이나 파우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 상품에 내가 소비하고 싶다. 제가 만난 20대들은 그런 소비를 원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민우회와 인연을 맺게 되셨잖아요. 그 때 어떠셨는지 그 경험이 궁금해요.

명아: 민우회에서 제안 주셨을 때 놀랐죠. 우리를 선택해 준 이유가 있었을까 이제 이런 고민.

작년이 이제 2년 차 넘어가고 이제 헛수로 3년 차가 됐을 때였는데 사실 초반에 뭐랄까. 스토리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런 일자리 있어야 돼. 내가 이걸 망하더라도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걸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걸 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때여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랬던 때인데 작년은 그걸 조금 넘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제품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주목받기 좋은 스토리였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쨌든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 가장이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일이긴 했죠. 그래서 아이콘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사실 1년 차에는 저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고 근데 이제 2~3년 차 넘어가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제품과 브랜드에 좀 더 이야기가 가야겠다. 진짜 좋은 제품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죠.

저희가 가장 좋은 거는 선물 받으신 분이 그 분이 연락을 주셨을 때 다른 분한테 선물하고 싶다고. 그 때가 가장 사실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저희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도 이제 그렇게 선물 받으셨던 분들 덕분이거든요. 저희 광주 같은 경우 양 쪽 집안 중에 한 집은 시골, 전남권이 있어서 이게 또 주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구입하시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근데 선물로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마음을 가져주시는 게 좋았고 그렇게 선물 받으신 분들이 나도 또 선물하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주시는 게 그게 가장 고맙죠

Q. 저희가 블로그 보니까 매달 공동구매로 샤인 머스켓도 사고, 수세미 같은 것도 사서 계속 기부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건가요?

명아: 이유식 업체 까꿍맘마라는 곳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안전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저희 비전이 건강한 식탁 안전한 육아 행복한 공동체거든요. 우리한테 가장 어울리는 기부처를 찾고 싶었어요.

미혼모 대상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고 사실 우리 또래도 맞아요. 처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유식이 너무 힘들거든요.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가르쳐주는 것도 사실 많지 않고 잘 찾아보고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 자체도 엄청난 노동이기도 하거든요. 그 시기에는 잘 자고 잘 먹고, 이게 가장 큰 양육의 목표잖아요.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엄마가 가진 죄책감.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육자가 혼자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쉬운 방법을 찾아 아이들 밥 빨리 먹이게 되고 하는데 그 시기에 평생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도 하거든요. 이유식을 먹일 때 재료나 이런 것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구요.

처음에는 제품 기부도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제품 물론 좋지만 대상자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이유식 기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유식 업체인 까꿍맘마 대표님께 저희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이야길 하고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를 정해서 발송을 하려고보니 이유식이니까 한꺼번에 다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까꿍맘마 쪽이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1정도하면 까꿍맘마 쪽에서는 그 두 배만큼을 이유식으로 기부하겠다고 해서 두 배로 커진 거죠. 이렇게 까꿍맘마 쪽과 같이 하게 되었고 대상자 선정은 재능기부센터에서 남구 가족센터를 연결을 시켜주셔서 거기를 통해 하고 있어요. 보통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 연령기가 6개월부터

15개월 정도까지거든요. 그 연령기의 아이를 한 명씩 선정해서 15개월까지 지원하고 이제 15개월 지나면 또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아이가 15개월 될 때까지는 꾸준히 지원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하는 방식이죠. 이번 달까지 첫 번째 대상자 지원이 끝나고 다음 달부터 7개월 정도 되는 아이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 양육할 때 생각하면 이유식 만들면 애들 한 가지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집이랑 나눠 갖고 이럴 거거든요. 잘 먹으면 되게 기쁘고요.

Q. 저는 너무 웃겼던 게 저희 언니가 열심히 양파 다지고 당근 다지고 해서 볶음밥을 해줬는데 안 먹고 그냥 김에 싸주니깐 먹던데요. 김이 엄마들을 살렸어요(다들 웃음) 그 대상자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든든했을까 싶으면서 진짜 되게 좋네요. 한 아이를 꾸준히 이렇게 서로가 같이 돌본다는 게..

명아: 저희가 저희 제품을 계속 판매를 해왔는데 이제 단골 고객들이 생기면서 지역의 제품들도 같이 소개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실은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부를 하는 것보다 3일 동안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지역의 제품들을 선택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소개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기부를 하면 어쨌든 다른 제품도 알리고 우리도 또 그런 제품 소개할 수도 있고 같이 기부에도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면서 착한 공(동)구(매)를 기획을 하게 된 거죠. 주변에 또 한 명씩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겨요. 까꿍맘마 대표님도 바로 같이 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대상자가

다음 달 만료된다고 했잖아요. 디자인으로 선 드로잉하는 친구가 있는데 끝날 때 액자 선물도 해드리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연결이 또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가 주어지면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기부 활동 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돌볼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게 줌으로 하는 자전거 모임이 이에요. 2주 회비가 4천 원이거든요. 이 4천 원은 ‘형겅원숭이’라고 아이들 도시락 반찬 만드는 곳이 있는데 참여자들이 2주 다 완주를 하면 커피 쿠폰을 받고 2주를 다 완주를 못하면 그 4천원은 이제 ‘형겅원숭이’에 기부가 되는 거예요.

Q. 뭔가 나를 돌보면서 또 사회적 기여를 하는 이런 모임 너무 아이디어도 좋고, 재미도 있을꺼 같아요. 재밌게 사시는군요^^다음 질문은 일의 기쁨과 슬픔인데요. 찬찬히 방앗간을 운영한지 이제 3년 되셨다고 했는데 진짜 되게 보람차다 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명아: 저희가 작게나마 매년 2배씩 성장한다는 거. 너무나 큰 기쁨이고요. 주변에서 그만 두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혼자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혼자 할 거였으면 아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이 정도 수익을 가져가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팀을 짜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일이 시작이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니깐요.

저희 19년에 창업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고, 2020년에 60일 이상의 이 여름 장마가 오면서 깨값이 두 배 이상의 상승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때도 버텼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19년 20년 지나오면서 위기가 여러번 있으면 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품목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 시기를 버텨야 했으니까 품목이 늘어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기후 위기와 다 연결돼 있어요. 진짜 우리 국산 참기름이 이제 못 먹을 수도 있겠다. 작년에 깨값이 그렇게 올랐을 때 자본이 있어서 깨를 미리 사뒀던 사람들은 이 돈을 벌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사실 이걸 기업 형태로 같이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Q. 그럼 그 고비마다 팀원들과 갈등은 없으셨어요? 솔직히 늘 좋기만 한건 아니잖아요.

명아: 이런 질문 사실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제 팀을 유지하는데 원래 지인들이 시작을 하는 팀이 훨씬 더 어렵다.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했냐라는 질문도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관계는 관계고 일은 돈이다. 일을 관계로 정리하려고 하면 깨지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할 때 있어서 저는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때는 제품도 없어서 판매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와 이 일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시간을 시간대로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팔기 전까지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급을 줬어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가거나 하는 것도 다 시급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관계는 관계고 일은 돈이다. 저희 그때로 생각하면 지금 2배 올랐거든요. 우리가 처음 받았던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하고.

그게 가장 큰 비결이라기보다 기본인 것 같아요.

둘이서 시작한 일인데 함께 하는 사람이 벌써 4명이 됐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죠.

Q. 그러면 일의 기쁨은 얘기해주셨으니 여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예전에 경향 신문인가 한겨레에서 여성 자영업자들만 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폭력 피해 경험도 되게 많고 위협받아본 경험도 많다고 본 것 같아요. 여성 CEO 혹은 여성 대표로서 좀 불편했다거나 불쾌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지요.

명아: 저의 상황이 그럴 상황에 놓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같긴 해요. 창업하고 한 번도 저녁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4시 퇴근이다. 처음부터 그 원칙으로 갔어요. 우리는 물론 그런 걸 요구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초반에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저녁은 어렵고 만나려면 점심 때 만나야 하고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잡혀와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올해부터 저는 1시부터 6시 공식 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애들은 크니까 그만큼 더 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Q. 대표님 활동보면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공동 작업을 계속하시던데 그러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이나 혹시 경험이 있으실까요?

명아: 한새봉 개굴장을 참여한 것이 창업의 어떤 씨앗이 되기도 했거든요. 18년이었나 처음 개굴장 할 때 수제 제품가지고 셀러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 뒤로도 저희가 신제품을 나오고 할 때 가장 먼저 가지고 가는 곳이기도 해요. 먼저 선 보이고 개굴장이 가지고 있는 이 장터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고 하죠. 활동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술의 영역에서 더 가까이 살았었고 지금은 상업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 경계를 잘 지키려고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판매가 주력이다 보니까 포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죠. 여기가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매출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니까 고민은 늘 있는데 그 경계에서 그래도 내가 놓지 않고 이런 고민들을 나에게 계속 던져줄 수 있는 곳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나는 이쪽도 되게 맞는 것 같아 여기도 놓을 수 없고.. 정체성 혼란도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겠다. 여기 이야기를 이 쪽에 할 수 있고 이 쪽의 이야기를 또 저 쪽에 할 수 있는 게 내가 더 잘해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해요.

Q. 원래 질문지에는 없던 내용인데 뭔가 대표님께 중요한 경험 같아서요. 탈춤을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형성되셨을 것 같아요.

명아: 그런 것 같아요. 탈춤은 20대 한창 폭풍 같던 시절에 저를 형성한 가장 큰 거였죠. 탈춤 알려주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이었는데 정확치는 않지만..대략 “춤은 이렇게 동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말이 많이 남아 있었요.

Q. 총명아씨 때의 대표님 이야기도 부탁드립니다.

명아: 고등학교 때 풍물패를 했었는데 친구 오빠가 탈패를 하고 있어서 같이 가보지 않을래 해서 자연스럽게 가서 배웠던 게 되게 좋았어요. 멋있었어요. 너무 강렬했어서 하고 싶다. 그래서 하게 된 게 어떻게. 평생 먹을 수 있는 술은 20대 때 다 먹은 것 같아요(다들 웃음) 지금은 한잔도 잘 못 마시는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마셨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만 해도 아마 밤 새고 이야기할 수 있을꺼예요.

광주가 탈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큰 선생님은 일산에 계셨고. 광주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의 여건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배역이 없는 거예요. 광주에서는 교육 말고 이제 공연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춤 추는지 아는 사람들도 공연을 본 적이 많지 않으니깐 제가 직업으로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일은 어쨌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대표의 무게가 있어서인지 그렇게 절 드러나게 봐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되게 어렵고 고민도 많고.. 탈춤추던 총명아씨의 시간이 저한테는 훨씬 더 길었으니깐요.

Q. 저희가 준비한 질문의 마지막인데요. 대표로, 엄마로, 그리고 일 자체도 쉽지 않을꺼 같구요. 혹시 소진되는 느낌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오셨나요?

명아: 솔직히 이 질문을 보고 생각해봤는데요. 전 소진될 만큼 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 좀 마음껏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한 번도 그래보지 못했으니깐요. 마음껏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또 있는데 일을 시작했던 이유와 욕심 사이에서 잘 밸런스를 가져가려고 그런 노력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이런 사회적 주목과 기회가 언제나 있지는 않을 텐데 한 번은 마음껏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내가 아이들의 양육과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을 때 그 밸런스를 찾아가는 데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Q. 매번 힘들다.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야기만 듣다가 마음껏
일해보고 싶다는 대표님의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장명아가
정말 활활 타는 모습을. 그렇다고 다 태워버리시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보고 싶고 응원합니다!

어머니의 삶, 딸의 미래를 시켜주는 거울

임민영(광주여성민우회 회원)

어떤 곳의 직함을 가진 누군가가 아니라 오롯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자 하는 인터뷰를 고민했다. 모든 여성들에게는 그들만의 허스토리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만나서 이들과 만나고 싶었다.

10명의 인터뷰이를 선정함에 있어 누구를 만나보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 내 동료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이의 어머니. 그리고 익히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퍼뜩 함께 떠올랐다. 나이주의를 지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의 표도 알기 어려웠을 시절을 통과해온 이, 우리 전 세대의 여성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반갑게 초대했고 우리의 언니이자, 엄마인 그 분은 기꺼이 초대에 응해주셨다.

Q. 저희의 공통질문이 있는데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 세 가지로 민영을 소개해주시면 돼요.

임민영(이하, 민영): 키워드라는게 저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라면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구요. 결혼한 여성이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또 엄마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네요.

Q. 사회복지사, 여성, 엄마를 이야기해주셨네요. 사회복지사로 꽤 오래 일해오신 걸로 아는데요. 어떠셨나요?

민영: 제가 학부에서는 약학을 전공해서 약사로 한 2년 정도 일을 했고 결혼을 하면서 그만뒀어요. 시부모님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셨고 남편도 대학원 졸업 후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었구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약국에 취업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있다보니 어려웠죠. 시부모님께서, 운영하는 육아시설에서 일해보라고 하셨어요.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부부가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큰 애가 네 살 때, 1994년부터 육아시설 보육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당시엔 보육사에게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구하진 않았는데 시부모님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보육사로 채용하셨었죠. 제대로 일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했고 또 계속 일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해서 2003년에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28년째, 사회복지사로 20년째 일하고 있네요. 약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건 드문일이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사회복지사와 결혼해서 그렇다는 말을 합니다. 시댁 집안의 사업이니까 하게 되었고 약사나 사회복지사나 크게 보면 사회복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30년을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그럼, 혹시 내가 페미니스트가 된 계기나 또는 키워드 중에서 여성이 있었는데 내가 여성이구나라고 하는 깊은 자각을 한 순간이나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민영 : 아버지는 아들이네 딸이네 차별하시는 편이 아니셨는데 엄마는 편애를 하셨어요. 아들이 좀 약하고 챙겨야 할 이유도 있었지만 그땠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딸이라고 자존감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좀 무딘 편이라 그런지 자라면서 특별히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된 계기는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다만 어머니께 항상 감사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딸이라고 해서 기회를 박탈한다든가 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공부를 잘해도 딸이라는 이유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못 가고 상업학교에 가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한다든가 해서 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애들이 많았던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딸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야 시집을 잘 보낼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과외를 시켜준다든지 학원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차별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선택할
길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그때는 결혼하면 아내의
호적이 남편 호적으로 옮겨졌거든요. 저의 본적이 남편의
본적으로 바뀌어 있는 그 증명서를 보니까 기분이 묘하더군요.
왠지 밀려난, 떨어져난 느낌이었고 그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20대
중반이었고 남편은 대학졸업반이었죠. 연애를 오래 했으니까
결혼에 대해 생각은 했지만 언제 할지, 신혼집은 어디다 구할지
지금 같으면 너무 당연한 것들을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남편이 학업을 마치자 시댁으로 들어갔고 곧 아이를
가졌어요. 남편은 부모님 일을 돕느라 너무 바빴고 저는 집안일을
하게 되었죠. 출산하고 나니 육아까지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뿐이더라구요. 밥때는 왜 그렇게 빨리도 돌아오든지.
친정에서 귀함 받고 떠받들여져 산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 중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나는 가족 중 맨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깨달음이
왔죠. 그때부터 여성에 대한, 여성의 삶에 대한 생각과 함께
그것과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성의
삶에 대한 것을 꼭 생각해볼 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항상
부당함이었다는 것 같아요. “부당하다.”

Q. 여성이 억압을 느끼는 순간이 정말 결혼제도로 들어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영은 약사라는 전문직이었는데요. 만약 내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은지 혹시 상상해본 적 있으실까요?

민영: 내 나이 또래의 여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 또는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왔던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면 안 가고 싶다는 거죠. 보통 5, 60대 정도 되면 책임감, 의무감에 싸여 있을 시기도 아니고 어느 정도 벗어난 상황이잖아요.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좋지만 만약에 그래도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딸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은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구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자기 애들을 만날 수 없었을테니 애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결혼한 것이 좋다고. 물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제 예쁜 딸들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렇다고 해도 애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 딸들에게 너희들을 만났기 때문에 결혼한 게 좋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약대를 갔던 것도 언니가 약사가 여성에게는 괜찮은 전문직이라고 추천했기 때문이었어요. 돌이켜보면 남자가 꼭 필요했다기보다는 나이 찬 여자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시절이었고, 또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울타리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런 사람이 남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을 남편에게 다 얻을 수는 없었어요. 불가능한 것을 바랐던거죠.

결혼이라는 것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핸디캡인건 사실이에요. 권리보다는 의무가 훨씬 많고. 단순히 나라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에는 결혼이 그렇게 썩 좋은 답이 아니었던 거죠. 결혼말고도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감싸 안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잘 몰랐죠. 어쨌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살지 않았을까. 뭐 큰 성공을 이루거나 그랬다는 의미는 아니구요. 결혼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상은 해봐요.

제 애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결혼을 하면 부부가 둘이 하나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실패한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결혼을 해도 행복할 거다.” 나에게 무슨 결핍이 있어서 상대가 그 결핍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네가 충분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때 너와 똑같이 독립적인 사람을 만나서 더욱 더 확장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Q.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길 해주셨다면 저희도 다른 선택들을 했을텐데요(다들 웃음) 혹시 페미니스트로서 양육할 때 어떤 가치관 같은 걸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영: 일단 아이에게 무슨 공주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았어요.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딴 거 읽어주지 않아!

공주가 왕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네 뭐 그런 종류의 책들은 아예 사주지 않고 읽어주지도 않았고, 인형 같은 것도 사주지 않았어요. 책을 사줘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종이봉지공주’라고, 공주가 왕자를 구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성별 고정관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책들을 읽어줬어요. 장난감을 사줘도 의사 놀이 그런 것을 사줬지 소꿉놀이는 사주지를 않았어요. 밥하고 반찬하고 그런 걸 장난감이라고 하는 건 남자애들에게 총이나 칼 사주는 것만큼 야만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생각하니 너무했나 싶긴 하지만 그때는 엄청 진지했었어요.

이제 생각해보면 딸만 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둘 중 하나가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키웠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 딸에게 했던 것처럼 성중립적인 육아를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남편의 도움이 훨씬 더 필요했겠죠. 남자는 평생 세 번 우는 거라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살상용 무기를 장난감이랍시고 사다 주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들이라고 기 살린다고 뭐든 다 하게 해 주고 딸은 위험하다며 과보호해도 곤란하구요. 남편은 딸이 연애도 안하고, 결혼 생각도 없고 그런 게 민우회에서 일하는 것과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말을 잘 못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그게 일정 부분 아빠의 역할이 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독박 육아를 했고 둘째 가졌을 때는 출산 때까지 일을 했어요. 애를 맡길 데도 없었고. 내 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내키지 않았구요. 자식 키우느라 애쓰신 부모에게 손주까지 키워달라고 부담주기도 싫었어요.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눈치 보지 않고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무실 소파에 눕혀놓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가면서 일을 했죠.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할 수도 있는데 그땐 그런 생각 할 새도 없었고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내왔나 생각을 하면 ‘그때 그랬지. 맞아,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 당시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텼던 것 같아요.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한 시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쓸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제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없던 시절에도 월급 받으면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씩 사던 때였는데 읽을 시간이 없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집안일 시작이고, 일하는 중간중간 애한테

일 생기면 뛰어가야 하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학부모회의다 상담이다 선생님이 부르면 가야 하구요. 애는 둘이 만들었는데 키우는 건 내 몫이었죠. 또 시댁에 일이 있으면 내 사정과 상관없이 가야하고 이러다보니 그때는 항상 그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온전히,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큰 딸에게 고마운 게 알아서 잘 커준 거, 제가 좋은 엄마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여유롭게 돌보지는 못했어요. 또 첫아이라서 육아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애를 좀 반듯하고 엄격하게 키우고 싶었구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애를 키웠어요. 엄마의 역할이라는 게 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아들을 키우는데도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아빠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딸에게 는 엄마의 삶이 자신의 미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선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 엄마에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더니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적당한 시기에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알뜰살뜰 살면서 자식 잘 키우고 하는 게 여자의 행복이라구요. 나를 좋은 남자 만나서 큰 고생 안하고 살았다해도 엄마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요. 근데 엄마는 그냥 그

삶을 당연한 걸로 아는 거죠. 나는 엄마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자식을 키우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해 가감 없이 좀 이야기를 해줬다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별로 좋은 엄마노릇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여자의 삶, 특히 기혼여자의 삶에 대해서 꾸준히 성찰할 기회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딸들에게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런 쪽으로는 좀 도움 되는 엄마가 아니었을까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남편은 저를 원망하지만 본인은 결혼하고 애가 있어도 집안일이나 육아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꼈을테구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제 탓만 하는 것에 대해 좀 억울하죠.

애인이 있는 작은 애한테는 이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신혼 때는 시댁에 잘 보이고 싶잖아요. 수신지 작가의 웹툰 ‘며느라기’에서도 보듯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큰 며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단호하고 시부모에게도 할 말 다하고. 어른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게 내 자신을 무너뜨릴 만한 상황이라면 그냥 “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는 건 솔직히 힘들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니요, 싫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건 이후 결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기쁘게 하되 나를 갈아 넣을 만한, 내 존재를 무너뜨릴 만한 일을 그냥 참고 하면 나중에 그런 것들로 인해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Q.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딸이 시민단체에서 제 일을 지금 거의 10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딸을 비롯한 민우회 활동가에게 혹시 해 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민영: 몇 년 전에 페미니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론도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잘 몰랐을 때는 페미니즘라면 여성의 권리를 찾는 거, 여성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여성의 위치를 올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말이에요. 근데 강의를 쪽 듣다 보니까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사람이면 갖춰야 하는 기본 예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민우회의 활동이 물론 여성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기후위기, 원전반대, 동물보호 같은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민우회가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방법을 찾는 일을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나 동물, 지구환경 등등 존재 자체로 그 누구도 수단이 아니고 목적인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의 존재 자체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우회 활동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고 또 계속 지향해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진짜 마지막 마지막 질문. 이제 퇴사 종료 시점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시고 싶으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민영: 제 소원입니다.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그냥 퇴직만 시켜주신다면 감사한 마음. (다들 웃음) 제가 하는 일 자체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현재는 노인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잘 돌봐드려도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잘 대접받고 간다는 생각을 하고 가시게 하자고 생각하며 버팁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고 저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같아서 맨날 농담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퇴직이라고. 자르셔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그만두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칭찬받는 일을 하고 싶어요. 복지시설에서 일한다고 하면,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직업으로 삼고 일하는 직장인 인건데 봉사, 희생, 천사 뭐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부담스럽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또 욕도 많이 먹거든요. 자기 부모 제대로 잘 못 돌봐준다고. 퇴직하고 나면 일로서 아니고 그냥 내가 내킬 때 봉사하고 싶어요. 그럼 아마도 일하면서 받지 못했던 칭찬, 찬사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나중 일이고, 실은 쉬고 싶어요. 의무감, 책임감,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Q. 계속 질문이 이어지네요. 혹시 결혼이나 독립을 꿈꾸고 계시나요?

민영: 생각해 본적은 있습니다만, 꼭 그래야겠다고 생각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결혼한지 3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각자의 삶의 태도를 존중하긴 하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수용이 안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요.

저는 가족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기본이 있다고 생각해요.

딸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가족이니까 불쑥 찾아가고 하지 않거든요.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반드시 형편이 어떤지, 가능한지 물어보죠. 남편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상대도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의 의향을 먼저 묻는 나를 이상하게 봐요. 가족끼리 뭘 꼭 그렇게 하냐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요. 나에게 그렇게 의견을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결혼한 후로 시댁 쪽 일이 있을 때 내 의향을 묻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내 의견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구요. 솔직히 내 의향을 묻는다고 한들 싫다고, 아니라고 할 용기도 없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건 정말 싫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가족 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항상 물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는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의견을 물어야 하는 상황일 때면 의견을 묻거든요.

그래서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강요하지 않아요. 싫은 일을 싫다고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나중에 거절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은 즐혼이라든가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참지 않고 “나는 이게 싫다,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살려고 해요.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요.

Q. 진짜 마지막이에요. 혹시 인터뷰소감은 어떠셨나요?

민영: 무슨 질문을 하실지 무척 궁금했고 대답을 잘 할 수 있으려나 걱정도 됐어요.

딸은 나를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페미니스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다보니까 잊고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고, 그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절망감, 부당함이 떠오르면서 내 딸들은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 이야기했던 것이 딸을 페미니스트로 만든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 사람 간의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례하지 않고, 또 동물이나 자연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거라고요. 나의 페미니스트 모먼트라면 항상 ‘지금’인 것 같구요. 이런 멋진 기획을 하고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해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페미니스트 코멘트

광주,
여성 10인의 삶을 글로 엮다

발행일

2022. 10. 28

기획

김미리내(봄봄), 김찬숙(하민), 박재영(젼마),
이혜빈(나나)

인터뷰어

김미리내(봄봄), 김찬숙(하민), 김효경(감자),
박재영(젼마), 이제희(희동), 이혜빈(나나),
정지윤(햇살), 최희연(몽실)

인터뷰이

다드래기, 소영, 한소현, 김진희(무도), 이희영,
말리, 윤희경, 이소아, 장명아, 임민영

디자인

최지선(사각프레스 @sagak_press)

우)61172 광주 북구 중문로 78 2층

대표전화 062-529-0383

FAX 062-529-0384

이메일 gjwomenlink@gmail.com

홈페이지 <http://gjwomenlink.or.kr/>

본 인터뷰집은 <광주NGO시민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